

2004 수능 언어영역 해설

[정답]

1. ③ 2. ② 3. ② 4. ③ 5. ③ 6. ① 7. ④ 8. ④ 9. ④ 10. ①
 11. ④ 12. ⑤ 13. ④ 14. ① 15. ① 16. ① 17. ③⑤ 18. ③ 19. ② 20. ④
 21. ② 22. ⑤ 23. ⑤ 24. ① 25. ④ 26. ④ 27. ⑤ 28. ⑤ 29. ⑤ 30. ②
 31. ② 32. ① 33. ⑤ 34. ③ 35. ④ 36. ⑤ 37. ① 38. ⑤ 39. ⑤ 40. ⑤
 41. ① 42. ② 43. ② 44. ③ 45. ③ 46. ② 47. ② 48. ⑤ 49. ③ 50. ④
 51. ③ 52. ① 53. ④ 54. ③ 55. ④ 56. ① 57. ③ 58. ⑤ 59. ⑤ 60. ②

1. 이제 라디오 드라마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리하여 이순신 함대는 6일에 노랑 해상에 이르렀다. 이순신은 전라 좌우도 및 경상도의 수군을 집결시켜 55척의 전선으로 함대를 편성하였다. 이날 이순신은 다시 모든 전선을 이끌고 창선도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다음날인 7일, 아군 함대가 당포에 이르러 식수와 연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순신은 그 섬의 주민으로부터 중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왜선 70여 척이 오늘 하오 2시경, 영등포에서 거제를 지나 견내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순신은 왜선이 수적으로 많음을 알고는 대응책을 고민하였다. 8일 이른 아침에 견내량으로 가서 그 근처의 지세를 관찰한 후 이렇게 말하였다.

“견내량은 싸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적군은 형세가 불리하면 육지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야 한다.”

이순신의 계획은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순신의 함대가 후퇴를 가장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왜선들은 사기 충천하여 앞뒤를 가리지 않고 따라 나왔다. 양 함대의 전선들이 거의 한산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순신은 모든 전선을 향하여 북을 치면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모든 전선들은 뱃머리를 돌려라. 학익진을 편성하여 적의 선봉을 공격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전선은 대회전을 시작하였다.

대회전에 성공한 이순신 함대는 각종 포화를 연발하였다. 왜군의 선봉선들도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순신 함대의 집중 포화를 막아낼 수 없었고 순식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후방에 위치한 14척의 왜선들은 응전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멀리 안골포 및 김해 등지로 도망쳤다.

주어진 드라마의 내용을 파악한 후 그것을 지도상에 적용하는 문체이다. 이순신이 “견내량은 싸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적군은 형세가 불리하면 육지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야 한다.”라고 한 후 한산도에서 적의 함대를 대파한 내용이다. 따라서 ㉠의 “견내량”을 적국과 격전을 벌인 곳이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은 설명이다.

2. 이번에는 법정 신문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판사 : 검사는 피고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세요.

검사 : 네. 피고는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서 그 곳에 갔나요?

피고 :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검사 :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았나요?

피고 : 아닙니다.

검사 : 누군가의 협박이 없었다면 피고 스스로 어떤 위협을 느꼈나요?

피고 : 아니요. 그런 위협은 느끼지 않았습니니다. 하여튼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검사 : 피고 자신이 가야겠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신 거지요?

피고 : 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검사 : 피고는 자유 의사로 그곳에 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변호인은 보충 심문하실게 있습니까?

변호사 : 네. 검찰 측에서는 피고가 자유 의지에 따라 그곳에 갔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고는 밤늦은 시간에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간 셈인데요. 거긴 왜 가셨습니까?

피고 : 안 갈 수 없었습니다. 이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고, 다른 윗분들이 거기 계신다는데, 제가 못 가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 : 피고가 가기 원했던 것은 아닌가요?

피고 : 아니요. 전 정말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전에 가 본 적도 없고요.

변호사 : 피고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셨던 거지요?

피고 : 예 그렇습니니다.

변호사 : 이상입니다. 판사님

법정에서 벌어지는 검사와 변호사의 심문 내용의 핵심은 범행 현장에 피고인이 가게 된 행동이 자유 의사에 의산 것인지, 아니면 갈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요인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의 행동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다.

3. 이번에는 어떤 발표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다음과 답지까지 잘 들은 후에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직업과 관련한 의사 소통의 문제 중에, 오늘은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에 대해 조사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대해 대체로 두가지 무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거나 병에 대해서 물어도 의사가 반응이 없을 때, 환자는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둘째, 의사가 설명을 해 준다고 해도 전문적인 용어로 어렵게 설명하는 바람에 호나가자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의사들도 환자의 말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자들이 의사보다 너무 앞질러 생각하여 말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죠. 환자 자신이 진단을 내리고 마치 그것을 의사에게 확인받으러 오는 듯이 말이죠. 둘째, 심지어 환자는 의사가 처방을 내려도 불신을 갖고 검사 지시나 처방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물음과 답지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답지는 남성인 환자와 여성인 의사의 대화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들은 의사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발표에서 지적한 사례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환자 : 의사 선생님. 아까 아랫배를 누르실 때 콧콕 쑤시던데 심각한 건 아닌가요?

의사 : 가만히 계세요. (짜증나는 듯이) 어디 다른 곳부터 먼저 봅시다.

<두 번째 대화입니다.>

환자 : 의사 선생님. 그럼 감기가 아니고 폐렴이라는 말씀입니까?

의사 : 네 폐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체 이 지경에 되도록 병원을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꾸중하듯이)

<세 번째 대화입니다.>

환자 : 의사 선생님. 여기 왼쪽 다리만 자꾸 쥐가 나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의사 : 쥐가 나는 것은 근육 경련 현상인데, 그 디하이드레이션이나 유산 축적, 극소 순환장애, 또는 근섬유의 부분 파열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화입니다.>

환자 : 의사 선생님. 속이 쓰리고 신물이 넘어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분명 십이지장인데 암으로 될 수도 있나요?

의사 : 십이지장 위양인 줄은 어떻게 아셨어요?

<다섯 번째 대화입니다.>

환자 : 환자분의 경우 CT촬영부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최종 결과에 대해 의논해 봅시다.

의사 : 그거 괜히 불필요하게 비싼 검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발표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의사 소통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제시된 사례 중, 첫 번째 대화는 환자의 물음에 의사의 반응이 없는 경우이고, 세 번째 대화는 의사가 전문적인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며, 네 번째 대화는 환자가 의사보다 너무 앞질러 생각하여 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섯 번째 대화는 환자가 의사의 검사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이번에는 수업 상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 인터뷰 질문은 두서없이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자 할 때 어떠한 질문의 순서가 좋을까요? 자, 여기 칠판을 보세요. 먼저 사실적인 세세한 질문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얻어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사실적인 질문은 ‘누구’, ‘무엇’, ‘언제’처럼 간단히 제한된 답만 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고, 의견을 묻는 질문은 ‘왜’, ‘어떻게’처럼 답변자가 시간을 갖고 다양한 답변을 보일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면 좋죠. 또 답변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부드럽고 쉬운 질문을 먼저하고 날카롭고 어려운 질문은 나중에 하는 것이 낫겠죠. 여기 인터뷰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인터뷰를 들어 보시고, 사회자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순서대로 평가해 보세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사회자 :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인기 가수 김영은 학우를 모시고, ‘청소년 연예인의 또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섯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김영은 : 네,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사회자 : 곧장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죠. 반에서 인기가 많을 텐데요.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죠?

김영은 : 많진 않아요. 두 명 정도와 친하게 지내요.

사회자 :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생각보다 친구가 적은 편인데, 공부와 가수 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인가요?

김영은 : 아무래도 그렇죠. 수업 끝나자마자 가 버리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친한 친구와도 자주 연락하질 못하니까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사회자 :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친구들과 언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김영은 : 글썽요. 언제라고 말할 만큼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지면서 거리가 조금씩 생긴 거 같아요.

김영은 : 음, 그건 오해예요.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조용히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을 것도 같아요.

사회자 :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김영은 : 네. 친구들이 저를 특별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인터뷰할 때 필요한 이론적 유형에 대해 말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누구’, ‘무엇’, ‘언제’와 관련된 질문은 폐쇄형이고, 의견과 관련된 ‘왜’, ‘어떻게’는 개방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은 ‘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 질문으로 보아야 적절하다.

5~6. 이번에는 전문가의 좌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 : 최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인문학계 대하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인문학이란 어떤 학문인가요?

남자 : 인문학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담긴 기록들을 찾아 읽고 정리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인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글도 있고, 허구적으로 인물의 삶을 그려낸 글, 또 인생의 구체적인 장면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원리들을 담은 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남긴 모든 기록들이 인문학의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자 : 한 가지 보태면요. 글만이 아니라 그림이나 영화 같은 비언어적인 매체들도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이 다루는 자료가 됩니다.

남자 : 예. 그렇습니다.

사회 : 과학자들도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글을 읽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인문학적 연구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자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학은 대상들을 기술하고, 거기서 법칙을 찾고, 더 나아가서 현상의 배후에 감추어진 작동 원리들을 찾아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지요. 과학자로서의 글읽기란 자신들의 연구를 위한 수단이겠죠. 앞선 사람들의 연구를 단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최신의 연구 성과를 흡수하기도 하고요.

사회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가 쓴 수필과 논문들까지 모두 읽고 정리한다면 그 사람은 인문학적 글읽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자 : 예, 아마도 그는 과학사를 연구하는 인문학자일 겁니다. 그와는 달리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물리 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의 글을 읽는다면 과학자로서의 글 읽기가 될 테고요.

남자 : 선생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인간으로서 살 만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인문학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이란 한 사회가 쓰는 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회가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삶에 대한 반성이지요.

여자 : 그렇죠.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기는 무슨 일기냐 하는 태도가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셈이지요. 사실, 그간 우리 인문학자들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데에 좀 소홀했던 점도 있긴 있죠.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인문학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남자 : 예. 아픈 곳을 찌르는 말씀이네요. 옳은 지적입니다.

5. 좌담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성격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종합적 고찰을 다루고 있다. 대담에서는 인문학이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학문이며, 그 연구 자료는 기록뿐 아니라 비 언어적인 매체도 연구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문학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통찰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삶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읽기를 통하여, 현상 배후의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것’은 ‘과학’연구의 수단이라 했으므로 ③은 거리가 멀다.

6. ‘인문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남자 전문가가 먼저 자신의 견해를 말하자 여자 전문가가 그 내용에 동의한 뒤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남자 역시 여자 전문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여, 두 전문가는 우호적이고 공감적인 분위기 속에서 좌담을 전개하고 있다.

7. 연상 내용의 적절성 확인

첫 번째 단계의 연상이 제목에 적절한지 파악해야 하며, 다음으로 첫 번째 연상과 두 번째 연상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첫 번째 연상은 ①~⑤ 모두 대화의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④에서 ‘수다스러운 말보다는 침묵이 더 빛날 때도 있다.’ 라는 내용은 ‘솔직한 표현과 완곡한 표현’과는 관련이 없다.

8. 주어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확인

보고서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설문 조사의 결과 도출된 주요 답변의 내용은 ‘재정적 열악성’, ‘제도적 지원 미비’, ‘상업적 대중성 경향’, ‘학부모의 이해 부족’ 이므로 보고서의 내용도 이에 한정해야 한다. ④는 ‘관객들의 인식 부족’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 결과와 관계 없으므로 올바른 보고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9. 논리 전개 과정의 이해

논리 전개 과정 중 (A)에는 앞의 과정에서 이야기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즉 ‘재원 마련 방법의 다양화’, ‘기부 참여의 유도’, ‘기부 문화의 의식 전환’의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 내용이어야 한다. ④는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내용으로 ‘소외 계층 지원 개선 방안’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이 없어 논지에서 벗어난다.

10. 주어진 조건 활용의 적절성 확인

홍보물을 위한 조건에 주목한다. 주어진 조건에서는 동아리 이름인 ‘별 불 일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묘미를 살리고, ‘별과 우주와 인생’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홍보 문구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되 ‘대조 기법’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은 ‘별 불 일 있는 사람’과 별 불 일 없는 사람 ‘을 대조하여 대조의 기법을 살리는 동시에 동아리 이름의 묘미를 살렸으며, 우주와 인생이라는 내용을 담아 내어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11. 주어진 글감의 효과적 적용

주어진 글감을 내용에 맞도록 조직하는 문제이므로 3회에 걸친 각각의 기사 제목과 글감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B’은 재취업을 위해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취업을 위한 개인의 자세와 관련되므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12. 고쳐쓰기의 적절성 확인

주어진 지문 속의 내용은 ‘과도한 인간의 욕망이 불러오는 문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과정과 결과가 측면에서 보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해에 관한 것이다. ㉔의 속담은 돈을 벌 때는 천한 일이라도 하면서 벌고 쓸 때는 떳떳하고 보람 있게 쓰라는 말로,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이다. 따라서 ⑤는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지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주제라 볼 수 없다.

13. 어법에 맞는 문장 찾기

①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라고 써야 하며, ②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써야 한다. ③은 ‘돈이 너무 적어’로 써야 하며, ⑤는 ‘김장을 직접 담가’로 써야 한다. ④는 ‘늘이다’와 ‘늘리다’의 쓰임을 묻는 문제로, 수나 분량의 경우에는 ‘늘리다’, 길이나 넓이의 경우에는 ‘늘이다’를 사용하므로 ④는 올바른 표현이다.

14. 단어의 내포적 의미 이해

주어진 조건에서 ‘㉠ 소리를 동반’하는 것은 ①, ③, ⑤이고, ‘㉡입을 주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②, ④이며, ‘㉢일회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④이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웃음 상징어는 ① ‘피식’이다.

[15~19] (가) 백석, ‘고향’ (나) 김춘수, ‘내가 만난 이중섭’ (다)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현대시)

15.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가)의 화자는 ‘북관’이라는 타향에서 만난 의원을 통해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나)에는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 ‘아내’ 때문에 즉, 아내의 ‘부재’로 인해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이중섭의 모습이 담겨 있다.

16. 시어의 의미 파악

(다)의 ‘거울’은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어 있는’ 소재이며, 여기서 ‘외할머니의 얼굴’은 내게 위안과 편안함을 주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나)의 이중섭은 거울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내면적으로는 그리움의 대상인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7.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가)의 ‘의원’은 화자로 하여금 고향고 아버지를 느끼게 해 주는 통로이며 매개이다. <보기>의 내용에서 테세우스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비밀의 방’이며, 그곳에 가기 위한 통로가 바로 ‘미궁의 문’이다.

18. 발상과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이해

(나)의 ㉠과 <보기>의 그림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이질적이고 비일상적인 사물’을 연계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를 감상하는 입자에서는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

㉢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시인의 마음’은 (나)와 관계가 없다.

19. 함축적 의미의 파악

(다)의 ‘집 뒀안’은 구체적 배경을 제시하며, ‘집 뒀안’과 ‘장독대’는 화자에게 있어서는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 또는 공간이며, 독자에게는 향토적 정감을 불러 일으킨다.

[20~24] 비문학 제재(인문)

20. 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이 글에서 글쓴이는 전통을 자기 문화를 본질적 특성으로 인식하는 통념을 비판하며, 전통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킬트를 사례로 들어 킬트가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임을 증명하고 있다. ㉡에서 사회적 통념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글쓴이가 반박하기 위한 것이며, 통념의 변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21. 핵심 내용의 파악

첫째 문단에서 과거의 문화를 오늘날과는 다른 문화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가 적절하다. ㉤는 전통을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으므로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22.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에서 김치를 한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통에 대한 통념이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현재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견해이므로 전통의 타문화라 볼 수 없다.

23. 문맥적 의미의 파악

‘자리를 잡다’와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는 ‘일정한 곳에 자리 잡아 살다.’라는 의미의 ‘정착되다’가 적절하다. ‘정돈’이나 ‘정비’는 ‘바로잡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것이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사례는 ㉠이다. 인도인은 카스트 제도를 전통이라 믿고 있지만, 이는 영국의 식민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과 일치한다.

[25~28] 이육, 심생전

25. 사건의 의미에 대한 추리

[A]는 심생과 처녀가 처음으로 만나 눈이 마주치게 되는 장면인데, 심생과 마찬가지로 처녀 역시 심생에게 호감을 느끼게 됨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장차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관계된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② 오히려 긴장감이 다소 고조되는 부분이며, ③ 행동이 드러나 있으므로 처녀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며, ⑤ 계속해서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시점이 변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26. 인물의 심리에 대한 추리

[B]에서 처녀가 여종을 안방으로 보낸 것은 처녀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물쇠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① 처녀는 처음부터 심생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차분하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호감을 숨기고 있고, ② 처녀는 심생이 처음부터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③ 심생의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물쇠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를 둘러 대고 있으며, ⑤ 심생을 단념시키기 위해 일부러 자물쇠 채우는 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27. 다른 작품에의 적용

처녀 역시 심생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으나, 사회적 규율 때문에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의 장면에서 처녀는 심생의 청을 거절하기는 했으나 마음 속으로는 심생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⑤(황진이의 시조)에서 화자 역시 임을 구태여 보내고 난 뒤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의 정서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8. 감상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

주어진 작품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좌절되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인간적 욕구를 다룬 작품의 전반부인데, 섬세하고 생동감 있는 묘사로 등장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짧은 문장을 연속해서 배치하여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또한 심생의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동경, 인정과 파루를 치는 등을 통해 당시대인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⑤ 주어진 지문에는 심생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집념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제약 때문에 그의 사랑이 처녀에게 거절당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29 ~ 33] 오정희, 중국인 거리

29. 세부 정보의 추리

‘나’의 가족은 ‘할머니-아버지-나’의 삼대에 걸쳐 구성되어 있으며(①), 마지막의 ‘내가 이 시와 나눈 최초의 약속이었으며~’로 볼 때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다(②). 또한, 처음 부분의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과 ‘해안촌’이라는 이름을 통해 항구 도시임을 알 수 있고(③), ‘살지 못할 동네’라는 할머니의 말씀에서 현재 처한 환경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④)을 추리할 수 있다.

30. 소재의 기능 파악

‘석탄’은 학교가 파한 후의 ‘우리’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과 말씀, 그리고 겨울방학이 끝난 후 학교에서의 일들 등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앞부분에서 아이들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석탄’ 때문은 아니다.

31. 내용 및 표현에 대한 이해

[A]부분을 <보기>와 같은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의 가장 큰 변화는 ①, ③, ⑤와 같으며, 공장과 수위에 대한 표현(슬레이트 지붕, 높다란 굴뚝, 나이가 많은) 등에서 ④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 제재인 ‘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32. 소재의 이미지 파악

②~⑤는 지문의 내용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노란색’이 겨울의 이미지와 대비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동네 아이들의 소망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33. 어휘의 의미 파악

㉠의 ‘바르다’는 ‘한데 어울려 있는 것 속에서 필요한 것(필요하지 않은 것)만 골라내다.’의 의미이며, 이와 같은 의미는 ⑤이다. ①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물체에 묻히다.’ ② ‘종이나 형질 따위에 풀칠을 하여 다른 물체에 붙이다.’ ③, ④ ‘도리나 사리에 맞아 어긋남이 없다.’

[34 ~ 38] 비문학 제재 (언어)

3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새로운 언어의 생성으로 인해 기존 어휘의 의미 범위가 변함으로써 체계 전체에 걸쳐 변화가 일어난 예에 해당하는 것은 ③이다. ‘우’와 ‘양’이라는 평가 요소의 소멸로 인해 기존의 ‘수,미,가’가 의미하는 범위가 변하게 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35.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대체로 어휘는 개방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선택의 폭이 넓지만, ④와 같은 경우는 선택 가능한 어휘가 ‘적다’와 ‘많다’ 정도로 제한된다. 따라서 ④는 폐쇄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반면 ①, ②, ③, ⑤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휘 선택이 이루어진다.

36. 주어진 조건의 올바른 활용

⑤에서 ④와 ㉠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이므로 선택 관계가 아니라 통합 관계이다. ①에서 <보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조’이며, ②에서 ㉠은 문장이므로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37. 주어진 조건의 올바른 활용

지역을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에 해당하는 예는 ①이다. 한 봉사는 ‘문수하오’라고 외치고

다른 봉사는 ‘문복하오’라고 외치는데 이는 서울과 시골이라는 지역차에 의한 것이다. ②는 시대를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의 예이며, ③과 ⑤는 계층을 기준으로 한 선택 관계의 예이다.

38. 세부 정보의 파악과 적용

①은 ‘어떤 수학자가 그 문제를 풀었다.’, ②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③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 ④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로 능동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⑤의 경우 ‘감기가 철수에게 걸렸다.’라는 능동표현은 불가능하다.

[39 ~ 42] 비문학 제재(예술)

39. 정보의 개괄적 확인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좋은 그림책은 완성되어 있는 글에 그림을 그려 넣은 책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책이다.’에서 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문단에서 ‘오늘날 그림책 속에 담긴 일러스트레이션은 점점 회화적인 요소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라고 했으므로 ③은 정답이 아니며, ①, ②, ④는 지문 속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40. 정보의 파악과 적용

첫 번째 문단에 설명된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 과정은 ‘책을 장식하는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가 오늘날 회화적인 요소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목적 때문에 예술적 의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일러스트레이션이 실용적 가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추리해 낼 수 있으므로, 가장 유사한 성격의 변화를 겪은 것은 ⑤이다.

41.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은 ‘말이 줄어들어 생긴 빈 자리에 상상력과 사유가 깃드는’ 상황을 ‘건축 설계에서 형태, 장식, 공간과 같은 요소들 가운데 공간을 다양하게 변용하는 데’ 적용시켰으므로, 그 ‘공간 변용’은 반드시 빈 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을 줄여 빈 공간을 만들고 자연 공간으로 활용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새로운 공간을 더 만든 ②나, 생활 공간을 넓힌 ③, 통로를 만든 ④는 공간을 줄여 빈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다.

42. 문맥적 의미 파악

㉡에서 ‘화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저러한 형태들과 방향들이 어찌어찌하여 그냥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②의 내용이 가장 거리가 멀다.

화가의 입장에서 ①, ⑤를 경험함을 생각해 낼 수 있고, 독자의 입장에서 ③, ④와 같이 그림을 읽어야 함을 생각해 낼 수 있다.

[43~47] 비문학 제재 (과학)

43. 핵심정보의 파악

첫째 문단에서 고전 역학의 기본 가정들을 소개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 기본 가정과 어긋나는 양자 역학의 불가사의함을 소개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양자 역학의 한계를 언급했으므로, 핵심적인 정보는 ②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③은 두 번째 문단의 예에만 관련된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 글은 고전 역학보다 양자 역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④), 양자 역학이 고전 역학을 대체하였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44. 정보 사이의 관계

㉠의 예는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지구에 놓인 한 입자와 금성에 보낸 한 입자 사이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속성의 측정에 관한 ㉠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는 ㉠의 가정에서 벗어난 예이므로 ㉢이 적절하다.

㉣는 고전 역학의 가정에서 벗어난 예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①,②는 정답이 아니며, ④는 ㉠와의 관련을 언급했으므로 정답으로 볼 수 없다.

45. 세부 정보의 확인

세 번째 문단에서 ‘지구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면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고 했고, A는 다시 측정한 수평 운동량에 해당하므로, ‘딩’, ‘댕’ 소리가 반반의 확률로 날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또한 이 예는 같은 방향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쌍의 입자에 관련한 예이므로 B에 들어갈 소리는 각각 A가 ‘딩’ 일 때는 ‘댕’, A가 ‘댕’ 일 때는 ‘딩’ 이어야 한다.

46. 세부 정보의 확인

두 번째 문단 첫 문장에서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했으므로 ②에서 물리학자들이 고전 역학이 양자 역학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정답이 될 수 없다.

47. 어휘의 의미 파악

문제에서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금성’에 대한 설명이 ‘셋별’이라는 순우리말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중심 별의 주위를 돈다’는 의미와 ‘잔별(작은 별)’이라는 우리말을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48~51] 비문학 제재 (사회)

48. 문단의 기능 파악

(마)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가)에서 ‘반사회적 사회성으로 인간의 소질이 계발된다.’는 논지와 ‘반사회적 사회성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나)에서는 이를 부연 설명하였다. (다)에서는 ‘반사회적 사회성’으

로 인해 인간의 소질이 계발되는 과정을 심화하여 설명하였고, (라)는 ‘반사회적 사회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므로, 다른 각도에서 논지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9. 세부 정보의 파악 및 적용

문제에서 언급된 ‘인간의 양면성’이란 본문의 ‘반사회적 사회성’이며,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사회에 속하여 자신의 자연적 소질을 실현시키면서도 사회에 반하여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려는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을 예술가의 입장에 적용하여 보면 사회에 속하여 자신의 소질을 실현시키려 하는 ㉠과 기존의 법칙을 거부하고 스스로 법칙을 부여하려는 ㉡이 정답이다.

50. 정보의 관계 파악

(나), (다)에 제시된 ‘진보’의 과정은 ‘반사회성→개인들 사이의 갈등→자연적 소질의 계발→지속적인 계몽→성숙한 사회 방식의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51. 주장에 대한 비판

㉠은 ‘인간에게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이 구현되지 못하고 사장될 것이다.’는 내용이므로, ‘반사회성이 없어도 재능이 계발될 수 있다.’는 ③이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타당하다.

①, ②는 핵심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 제기이다.

[52~56] (가) 유종원, ‘강설(江雪)’ (나)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다) ‘유산가(遊山歌)’ (고전시가)

52. 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는 눈 내리는 강의 정취를 관조적으로 표현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다)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다)가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물과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 비해 (다)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가 멀다는 ①은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53. 시어의 내포적 의미 이해

(가)의 작품은 ‘산-길-배-낙시질’의 시선 이동을 통한 시상 전개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노인의 모습을 통해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 흔적’은 ‘늙은이의 살아온 삶의 흔적’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단절된 적막함을 드러내기 위한 시어이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4. 외적 준거에 의한 비판적 감상

<보기>의 내용은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느끼는 ‘마음 안의 풍경’이 고전 시가를 이해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을 언급하고 있다. ‘야외(野外)’는 화자의 마음 안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이 아니라 속세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③은 올바른 해석으로 볼 수 없다.

55. 주어진 조건의 올바른 적용

<보기>는 시조의 형식이 지닌 의미에 관한 것이다. 3장 형식의 기능과 그 형식이 지닌 창작 면에서의 용이성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생각은 시조의 정형성을 전제로 한 효과에 주목한 것이어야 한다. ④는 형식 창안의 어려움에 관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56.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

(다)는 봄산의 경치를 즐기는 시적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선인들의 삶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와 유희적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기러기가 슬피 운다’는 표현은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기는 하지만 시적 화자의 비애의 정서라 볼 수는 없으므로 ①은 적절한 설명이라 할 수 없다.

[57~60] 김용준, ‘게’ (수필)

57. 내용의 비판적 이해

[A]에서는 게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를 드러내어(①), 욕심에 눈이 멀어 공동동망(共倒同亡)하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②,④). 또한 앞에서는 ‘무장공자’라고 하여 게를 높게 평가하다가 이 장면에서는 ‘해공(蟹公)’이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어리석은 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⑤)

58. 관점의 추리·상상적 이해

㉠에서는 대상을 통해 작가의 정신이 표현되어야만 일생을 바칠 만한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수(手)에 있는 것이지, 흉중(胸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숨씨를 중시하고 표현된 정신을 중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 작품에 담긴 마음을 중시하고, <보기>에서는 표현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59.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이 글에서는 물리적 속성을 드러내는 ㉠의 명명 동기를 소개한 후, 그 명명에 담긴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을 소개하고, 글쓴이는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역설적 의미를 발견하여 대상을 재인식하고 있다. ⑤에서도 ‘느리다’는 물리적 속성 때문에 ‘느림보’라는 놀림을 받던 친구를 통해 느림의 이면에 담긴 긍정적 측면을 역설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대상을 재인식하고 있다.

①의 경우 역설적 인식의 과정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60. 감상의 적절성 평가

글쓴이는 세상사에 얽히기를 싫어해서, 또는 그리기가 수월해서 게를 자주 그려서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게를 화제(畫題)로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

2004년 시행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정답

- 1.③ 2.② 3.③ 4.① 5.② 6.① 7.⑤ 8.⑤ 9.② 10.④
 11.④ 12.① 13.⑤ 14.③ 15.② 16.⑤ 17.③ 18.⑤ 19.② 20.⑤
 21.③ 22.② 23.① 24.⑤ 25.④ 26.④ 27.④ 28.⑤ 29.④ 30.④
 31.① 32.③ 33.② 34.② 35.④ 36.② 37.④ 38.④ 39.② 40.③
 41.① 42.③ 43.③ 44.⑤ 45.④ 46.⑤ 47.③ 48.① 49.① 50.②
 51.① 52.④ 53.⑤ 54.③ 55.① 56.② 57.⑤ 58.① 59.④ 60.③

1. 자료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공연을 위한 홍보물을 만드는 데 적합한 그림 자료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다섯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만사가 귀찮은 사람’이라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다고 했다. 하지만 ③의 그림은 음악을 들으며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기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 큰 안경을 쓰고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범생의 모습이다.
- ② 공부를 아주 지긋지긋해하는 인물의 모습이다.
- ④ 매사에 적극적이고 음악을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 ⑤ 비밀을 떠벌리고 다니기 좋아하는 수다쟁이의 모습이다.

2. 말하기의 특징 평가

정답해설 : 라디오 진행자와 초대 가수의 대화를 들려주고 있다. 대화의 내용은 가수들의 외모와 그들 노래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등이다. 가수들이 나왔을 때 진행자는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어필하는 외모를 지녔고, 멋진 의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자극적인 어휘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 ① 가수들은 ‘코디, 컨셉’이라는 말을, 진행자는 ‘어필, 컨셉’ 등의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가수들이 처음 그룹을 결성할 때를 회상하며 나는 대화에서 반말이 나오고 있고, ‘외모가 난감하다, 용 됐다, 허격, 쫘드기다’ 등의 비속한 어휘를 사용하여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④ 가수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설명할 때, 흑인 랩은 싸구려 하층민의 것이며, 백인 랩은 고급스럽다는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번개 치다, 껌 폐인, 뿔 날리다’ 등의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용의 전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3. 원리의 올바른 적용 평가

정답해설 : 이 수업에서 설명한 말하기 원리는 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즉, ‘나는 너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 기분이 어떻다’고 말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미리 책을 돌려 달라 하긴 했지만, 책을 던지며 불쾌하게 반응한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야 할 것이다. 너의 그런 행동이 나를 ‘야박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서 지금의 내 기분이 ‘상하다’고 표현한 것이 제시한 원리에 가장 적절하다.

4. 들은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말하기 불안은 왜 생기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말하기 점검표를 만들 때는 발표 내용에 제시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발표에서는 먼저 말하기 불안의 첫째 요인으로 개인적 성격이나 성장 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신감의 부족(④),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느냐의 여부(⑤), 말할 때 부정적인 지적을 많이 받았느냐이다. 둘째로는 상황 자체의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낮은 상황이나, 아니냐(③), 청자가 몇 명이나(②), 말할 내용이 청자에게 부담이 되느냐의 여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①에서는 말할 내용의 '청자에게 주는 부담 여부'가 아니라 '정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질문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구술심층 면접 상황에서 완벽한 사회정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교수는 다섯 번의 질문을 하고 있다. 먼저 학생에게 완벽한 사회정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묻고 있기에 이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학생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왜 그런지 이유를 묻고 있기에 주장에 대한 논거의 확인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은 학생이 대답한 '좀더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네 번째 질문은 학생의 대답에 대해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고 있기에 해결방안의 요구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질문은 누진세를 언급하는 학생의 대답에 대해 혹시 지나친 세금 문제가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겠는가라고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6. 말하기의 종합적 평가

정답해설 : 대화의 중심 화제는 완벽한 사회정의를 실현될 수 있는가이다. 학생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회정의를 실현될 수 없으며 이를 결벽증에 비유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좀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서는 빈부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누진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교수의 반론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쳐 주장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교수의 반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 ③학생이 제시한 방안은 누진세를 이용한 복지 정책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없다.
- ④외국의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⑤학생은 자신의 주장에 따른 일관된 대답을 하고 있다.

7. 연상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두 소재를 통해 올바른 주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두 소재에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상되어야 하고, 이는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어야 한다. ⑤분리된 가위와 일회용품에서 유행에 휩쓸리는 소비의 내용을 연상하기는 어렵다. 선지의 내용 자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그림과의 연결 고리가 잘못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②과거를 쉽게 잊는 우리 사회의 잘못을 '낯그릇'이나 '옛가위'이라는 사라져 가는 것을 통해 문제 제기하고 있다.
- ③용도와 모양이 서로 다른 가위를 통해 개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 ④파편화되고 개인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위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문제 제기하고 있다.

8. 자료를 활용한 글감 구상

정답해설 :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보면 찬성 의견이 약간 많으나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의견을 절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

거나, 설치를 하되 필요한 시간에만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⑤의 내용은 감시카메라의 설치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다. 왜냐하면 설치의 과정에서 또는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의 어떤 의사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 ①설치 지역을 한정하여 찬반의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②카메라 운영의 시간대를 한정하고 있다.
- ③설치 대수를 한정하고 있다.
- ④설치하지 말아야 할 지역을 인정하고 있다.

9. 자료에 따른 주제의 선정

정답해설 : 보기의 자료에는 청소년기 고전 작품 읽기의 목적과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청소년기 고전 작품 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때의 방안은 보기에 제시된 읽기의 방해 요인으로 제시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읽기의 방해 요인을 살펴보면 주로 독서하는 과정에서 겪는 해독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을 만들어내고 보급하는 것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당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10. 개요의 작성 및 수정

정답해설 : 메모한 개요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전체의 글은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의 긍정적 측면에, '인터넷 게시판 사용자 증가'의 항목을 추가한다고 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글을 써야 하기에 익명을 요구했을 때보다 인터넷 게시판의 사용자는 줄어들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주제문은 의문형의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
- ②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글을 써야 하기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 ③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므로 이는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제시하는 것이 좋다.
- ④실명으로 글을 쓰게 한다면 비판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⑤는 이러한 비판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었기에 논지를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11. 조건에 따른 글쓰기

정답해설 :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친구의 사정을 위로한 후 젊기에 힘을 내자고 하는 희망적인 내용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친구에게 어려움이 겹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을 적절한 속담을 통해서 드러냈기에 조건 2를 만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환한 웃음을 '햇빛'에 비유했으므로 직유의 표현이 쓰여 조건 3을 만족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②아프지 말고 봄의 새싹같이 털고 일어나라는 말에서 조건 1을, '새싹'의 직유에서 조건 3을 만족하고 있다. 조건 2를 만족하기 위한 속담은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 ③선생님께 혼난 친구를 위로하는 내용으로 어떤 조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④떨어진 친구를 위로하며 다시 시작하자고 희망을 주고 있다. 또한 적절한 속담도 있기에 조건 1과 2를 반영하고 있으나 직유나 은유의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12. 고쳐 쓰기

정답해설 : 이 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의 특성과 조건이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성을 지니

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 만족하느냐 정도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첫 문장에서부터 이 글은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을 중심 화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둘을 비교, 대조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피하기

② 이 글은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을 적절히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둘째’로 시작되는 문장은 새로운 문단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둘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인 ‘능동적인 행복은 ~ 유한한 것이다’는 통일성에 어긋난 문장이기에 삭제해야 한다.

⑤ 마지막 문단의 첫째 문장 ‘셋째, 물질적인 ~ 추구하는 사람이다’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 문장은 ‘물질적인 행복은 제한된 행복이다.’ 또는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제한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수정하여야 한다.

13. 높임법의 적절한 사용

정답해설 : ㉠에서 할아버지는 ‘께서’와 ‘시’를 통해 높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행위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다. ㉡에서는 선물을 받고 있는 ‘어머니’가 ‘께’와 ‘드리다’를 통해 높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머니는 행위의 대상이다. ㉢에서는 행위의 주체인 ‘할머니’가 ‘께서’와 ‘시’를 통해 높임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듣는 이’ 또한 ‘~어요’를 통해 높임을 받고 있다.

14. 시점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시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인 문장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한 행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미래에도 진행될 것이라는 진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행동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과거 완료이다. ㉢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기에 현재 완료이다.

15. 어휘 구조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저희들’과 ‘너희들’은 이미 ‘희’로 복수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복수의 의미를 지닌 ‘-들’을 붙여 결국 복수의 의미가 중복 표현한 단어이다. ‘외갓집’ 또한 이미 ‘가’에 집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집’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앞 말의 일부를 중복하여 표현’한다는 두 번째 조건도 있다.

오답피하기

① 빼와 골은 같은 의미를 지녀 단어 자체가 중복되었지만 ‘앞 말의 일부를 중복’한다는 두 번째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③ ‘쓰다’의 명사형 ‘쌈’이 반복되었지만, 이는 ‘쌈’이 단독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④ 단오와 날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⑤ 교차와 로가 결합되어 ‘가로세로가 엇갈린 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약 ‘교차로길’이라 했다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필

(가) 신영복, ‘매직펜과 붓’

이 글은 붓과 매직에 대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들의 특성을 대조적으로 분석하여 동서양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매직을 실용과 편의의 서양적 산물인 ‘인스턴트의 총아’로, 붓을 동양의 정신을 담은 ‘매운 지조의 선비’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붓을 선호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나) 이어령, ‘폭포와 분수’

이 글은 폭포와 분수라는 대조적 특성을 지닌 두 사물의 분석을 통해 동양인과 서양인의 문명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고 있다. 필자는 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분수의 특성을 지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문명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16. 글의 종합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두 글은 유사점이 있다. 두 글 모두 대조적인 사물의 분석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와 (나) 모두 대상을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나)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가)에서 필자는 ‘붓을 선호’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에서는 분수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인 태도를 엿볼 수는 있으나(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등) 이에 대한 선호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
- ②(나)에서의 폭포와 분수는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특정한 것이기보다는 보편적인 대상이다. 하지만 (가)에서는 매직과 붓을 사용했던 필자의 경험이 그대로 글 속에 드러나 있다.
- ③(가)에서 ‘인스턴트 시대의 총아’, ‘매운 지조의 선비’ (나)에서 ‘불을 뿜듯이,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주먹질을 하듯이, 비처럼, 강물처럼 등’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가)에서는 붓과 매직을 통해, (나)에서는 폭포와 분수를 통해 필자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17.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두 글은 대조적 사물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를 고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 ㉡은 모두 ‘폭포’와 관련된 것으로 동양인의 사고방식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가)의 ‘붓’의 특성에도 연결되기에 ㉠과도 자연스럽게 묶일 수 있다. 반면 서양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가)의 ‘매직’과 (나)의 ‘분수’이기에 ㉠과 ㉡은 연관성이 있다.

18. 어휘 어법의 이해

정답해설 : ㉠에서의 ‘누(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즉, 정해지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의 ‘누구’도 이와 같이 정해지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반면 나머지의 ‘누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누구인지 모를 뿐이지, 이미 정해져 있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19. 관점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필자는 붓과 매직에 대해 언급한 후 ‘절충’이나 ‘종합’은 ‘은혜’와 ‘호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하며, 아무리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간 노선이나 회색 분자, 타협을 거부하며 뚜렷한 선택을 보다 중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과 미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절도 있는 삶이라고 보는 관점이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타협이 필요하다고 하나 필자는 이러한 회색을 비판하고 있다.

사회, ‘다이어트 열풍과 몸의 이미지’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다이어트 열풍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하고 있다. 필자는 소비 사회에서의 지나친 몸에 대한 관심은 대중 매체에 의해 잘못 심어진 인식의 결과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를 따라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오히려 몸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4문단에서 18세기를 언급한 것은 다이어트가 오늘날과는 다른 이유로 행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날씬한 몸매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여성은 현대의 여성들이다.

오답피하기

- ①2문단에서 ‘마릴린 먼로’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②2문단에서 1930년대와 1950년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미지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③2문단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몸의 이미지는 당대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3문단에서 대중 매체는 소비를 조장하며 사람들은 이러한 영상 매체에서 본 이미지를 모방하여 자신을 표현한다고 했다.

21.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은 오늘날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영상 매체에서 본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서이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결국 ‘몸에 대한 강박 관념’만을 강하게 심어줄 뿐이다. 그러므로 네 가지 내용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능동적인 자기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2.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에서의 ‘거울’은 ‘어떤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서는 얼굴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하다.

오답피하기

- ① 행동에 모범이 될 만한 귀감의 의미를 지닌다.
- ③, ④는 ‘사물을 비추어 주는 기구’ 즉, 중심적 의미로서의 ‘거울’이다.
- ⑤ 교훈의 의미를 지닌다.

23.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

정답해설 : ㉣은 몸에 대한 현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에서 ‘세수’를 언급한 것은 현대인이 바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만약 세수에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라면 ㉣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에서는 오히려 세수할 시간도 없다는 내용이므로 ㉣과 거리가 멀다.

오답피하기

- ② 몸매 가꾸는 방송을 보며 압박감을 느낀다고 했으므로 몸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다.
- ③ 옷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 ④ 화장이 지닌 예전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화장은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긴 했으나 개인적 차원이냐, 집단적 차원이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 ⑤ 랩을 좋아하기에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24. 다른 상황의 적용

정답해설 :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위 글의 관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살이 찐 상태가 아니다. 매력적인 몸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으로 인한 반응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보기에서의 ‘나’는 남들에게 매력적이고 날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연예인처럼 되기 위해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고, 그 결과 체중이 줄어드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의 반응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만들어진 시선에 기준을 맞춘 것으로 지적했기에 본문에서의 문제의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술, ‘예술 작품과 아우라’

이 글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영화가 전통 예술 작품이 지니는 아우라를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영화에서의 카메라라는 기계적, 기술적 장치는 이전의 예술에서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느꼈던 아우라를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를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25.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영화는 카메라의 개입으로 인해 관객이 배우와의 교감을 나눌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관객은 카메라처럼 배우를 시험하고 비평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했으므로 관객이 배우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3문단에서 연극과 영화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연극 배우는 관객과 호흡을 맞출 수 있지만 영화에서는 카메라가 개입하기에 이러한 교감을 나눌 수 없다고 했다.
- ②3문단에서 영화 배우는 관객과의 교감이 아니라 카메라를 앞에 두고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카메라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 ③4문단에서 보듯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카메라이다. 배우의 동작들도 카메라에 의해 편집되고 조립된다고 했다. 그렇기에 영화 배우는 여러 소도구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다.
- ⑤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벤야민 견해의 핵심은 기계적, 기술적 장치들이 예술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아우라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26.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해설 : 벤야민이 말하는 ‘아우라’는 예술 작품의 감상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는 2문단에서 밝혔듯이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에 몰입할 때만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한 송이 꽃에 대한 관심 끝에 꽃이 미소로 답한다는 체험이 이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상과의 상호작용의 교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 ①대상과의 교감이 아니라 나만의 일방적인 행동만이 나타나 있다.
- ②,③,⑤특정한 대상과의 상호적인 교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27. 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㉔는 아우라가 없는 영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나머지는 모두 예술에서의 아우라의 체험과 연관이 있다.

28. 논지에 대한 비판

정답해설 : 논지에 대한 비판으로 이때 비판은 글에 나타난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즉, 이 글에서 벤야민은 영화를 비판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예술이 지니고 있는 아우라의 체험이 영화에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벤야민은 영화를 진정한 예술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필자도 지적했듯이 오늘날 영화는 문화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므로 벤야민의 견해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기준을 그가 제시한 ‘아우라’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과 실제 오늘날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벤야민이 비판한 것은 영화 자체이다. 즉, 카메라의 개입이 있는 영화라는 장르 자체는 어떤 변화가 있어도 아우라의 체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 자체의 변화(①) 연기자들의 연기(②), 영화 규모나 관객의 수 증가(③), 카메라의 기술 발전(④), 등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이는 벤야민의 견해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인문

(가) 김부식, ‘진삼국사기표’

왕의 명에 따라 역사책을 저술한 김부식의 심경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우리 해동 삼국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기술한 역사책이 없기에 임금은 김부식에게 명을 내렸고, 김부식은 이를 성실히 수행했으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업적을 낮추고 있다.

(나) 이규보, ‘동명왕편 서(序)’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기록하게 된 사연을 밝히고 있다. 동명왕편이 세상에 많이 전해지나 처음에는 ‘귀’나 ‘환’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점점 그것이 ‘성’이며 ‘신’으로 여겨졌고, 또한 나라를 창시한 사적이기에 이를 기록하고자 한다고 했다.

29.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임금은 우리나라의 학사 대부분이 중국의 역사는 자세히 알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자가 많아 역사서를 김부식에게 편찬하도록 명령했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 ① 왕명에 의해 김부식이 사서를 편찬한 것은 알 수 있으나 이것이 널리 보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김부식의 말 ‘늙은 신에게 명하여 이를 편집토록 하셨으나’를 보아 사서 편찬 작업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③ 김부식은 ‘고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수가 없다고 했다.
- ⑤ 중국의 역사서 ‘한서’와 ‘당서’에 우리나라의 사적이 있기는 하나 외국이기에 간략히 기록하는 바람에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고 했다.

30. 글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가)에는 맹자의 말과 임금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사서를 편찬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김부식이 왜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었는지의 주장에 대한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나)에도 자신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음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규보는 이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동명왕편을 편찬하게 된 것이기에 이러한 인용이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을 지적한 왕의 명에 의해, (나)는 나라를 창시한 사적이기에 글을 쓰게 되었다고 했다.
- ② (가)에서는 ‘맹자’의 내용을 인용하여 (나)는 백낙천의 일을 끌어들이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이 글을 읽는 대상이 왕임을, (나)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규보가 글을 쓰게 된 경위를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밝히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가)의 김부식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뒷부분에서 책을 엮은 것이 부끄러울 뿐이라며 자신을 낮추고 있다. 공순은 ‘성격이 어렵성이 있고 고분고분하다’의 의미이다. (나)의 이규보는 중국의 백낙천은 황당하고 기괴한 이야기마저 후세에 남겼는데 동명왕편의 이야기는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이야기이기에 어찌 남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를 피력하며 이를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라임을 알리고자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31. 어법의 이해

정답해설 : ‘-에서’는 체언에 붙어 쓰이는 ‘부사격 조사’로 보기의 ‘-에서’는 어떤 행위의 ‘처소’를 나타내고 있다. ㉠ 또한 역사적 사실이 책에 밝혀져야 한다고 했기에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행동의 원인을 나타낸다.
- ③, ⑤ 행동의 지향점을 나타낸다.
- ④ 시간적 위치를 나타낸다.

32. 필자의 사고 추리

정답해설 : 김부식의 기본적인 역사관은 (가)의 글에도 나타나 있지만, 동명왕에 대한 그의 역사관은 오히려 (나)의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규보는 김부식이 국사를 기록하면서 동명왕 일을 많이 생략하였는데 이는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추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란 바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김부식은 동명왕의 이야기를 생략한 것이다. 하지만 이규보는 동명왕의 이야기가 단순히 피력난신이 아니라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이야기로 판단하였기에 시로 재구성하였다고 했다. 이규보가 백낙천을 인용한 것은 백낙천은 중국의 황당하고 기괴한 이야기까지도 기록에 남겼는데, 우리나라의 신성한 사적을 어찌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현대소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작품 해제 : 1976년에 발표된 조세희의 대표작으로 12편의 연작 소설이다. 이 소설은 난쟁이 일가로 대변되는 가난

한 소외 계층과 공장 근로자들이 가진 삶의 조건을 통해, 1970년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우리의 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문학적인 성취도에 있어서도 뛰어난 경지를 보여 주었다.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키는 서술, 환상적인 분위기의 조성이나 시점의 이동을 통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포착과 같은 수법이 잘 드러나 있다.

줄거리 : 난장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영수, 영호, 영희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의 소외 계층이다. 실낱같은 기대감 속에서 천국을 꿈꾸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 계고장을 받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아파트 딱지가 주어지지만 입주비가 없기에 혈값에 팔아버리고 간신히 전세값을 치르게 된다. 아버지가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 모두가 살려고 노력하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진다. 집을 나간 영희는 투기업자 사무실에서 일하다 투기업자에게 순결을 잃고 그를 마취시킨 후 입주권과 돈을 가지고 나간다. 서류 신청을 마치고 가족을 찾으러 이웃에 살던 신에 아주머니를 찾아간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에서 자살했음을 알게 된 영희는 큰오빠인 영수에게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 버리라고 말한다.

주제 :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

33. 작품의 비판적 감상

정답해설 : 달나라의 세계를 언급하는 아버지와 나는 갈등 관계에 있다. 여기에서 지섭은 아버지에게 달나라의 세계를 알려준 존재이기에 부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지섭은 아버지와 나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아버지와 지섭의 이야기를 보면 달나라의 세계가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아버지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를 왜 달나라로 설정하였는지 질문할 수 있다.
- ③ 제시된 글에서 난장이 가족은 집의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명희 어머니 역시 아무 저항 없이 이사를 가고 만다. 갈 곳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왜 저항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 ④ 이 글은 도시 빈민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철거민들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왜 작가가 도시 빈민 중에서 철거민을 소재를 선택하였는지 질문할 수 있다.
- ⑤ 집을 비워야 할 시기에 영희가 가출을 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왜 이러한 구성을 택하였는지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3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 다음날이란 난장이 가족이 집의 매매계약서를 쓴 다음날이다. 서술 시점이 바뀐 것은 맞게 볼 수도 있으나 대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난장이 가족이 집을 판다는 매매계약서를 쓰는 순간 영희의 행동은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비극적 상황과 대조되어 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이게 보이게 한다.
- ③ 아버지의 손에 들린 책을 매개로 하여 아버지와 지섭의 과거 일이 삽입된다.
- ④ 아버지와 지섭의 대화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영희를 찾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⑤ 내 머릿속에는 가출한 영희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면서도 행동은 돌을 던지고 있다.

35. 표현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부분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이 집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집을 파는 사건 자체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짧은 표현 속에 그간의 사정을 담아내고는 있으나 이들 가족이 떠돌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숙명을 읽어내기는 힘들다. 다만 무기력하게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고(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 이 사건 자체가 가족에게는 비극적인 일이며 어쩔 수 없는 일임(철거 계고장) 짐작하게 한다.

36. 조건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아버지 난장이는 이상 세계로 달나라를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설명대로라면 달나라는 그만큼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으며, 그 이상 세계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37. 다른 장르로의 변용

정답해설 : 아버지가 돈을 받는 순간에 삽입된 지섭의 목소리는 불만을 담고 있다. 이것은 집을 팔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지섭의 판단과, 이를 통해 난장이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긴장을 누그러뜨리기보다 오히려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영희의 감정을 제시하여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본문에서는 어머니의 심정이나 생각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시나리오에서는 어머니가 과거 이 집을 지을 때의 회상 장면을 삽입시켜 놓았다.
- ③사나이의 소리에 행복했던 과거의 회상에서 집을 팔아야만 하는 비정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 ⑤어머니가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집의 매매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겹치는 어머니의 멍한 표정과 장면의 바뀔,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시가복합

(가) 이현보, ‘어부단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작자가 관직을 은퇴하고 나서 자유롭게 강촌의 향취를 만끽하는 어부로서의 생활을 담은 작품이다. 고려 중엽 이후부터 전해 오던 ‘어부가’를 이현보가 개작을 한 것이고 후에 윤선도가 본뜻을 살려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를 완성하였다.

주제 : 강촌에서의 자유로운 삶

(나) 김영랑, ‘독을 차고’

작품해설 : 암울한 시대 현실에 정면으로 대결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작품으로 영랑의 일반적인 시 경향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벼는 허무한 세상에 독을 차서 무엇하느냐고 만류하지만, 시적 화자는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 독을 차고 살아가겠다고 한다. 육체는 비록 죽어 없어져도 불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항했던 혼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 : 식민지 현실에 대한 대결 의식과 순결한 삶의 의지

(다) 박목월, ‘가정’

작품해설 : 이 시는 힘겨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 돌아온 시인이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토로하는 한편, 자식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 의식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품으로, 현실적 세계를 시적 대상으로 삼은 생활시로서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가정의 고달픔과 인간애

38.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가)는 시름 없는 어부의 삶을 그려내고 있으나, 셋째 수에서 현실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내적 갈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나)는 벼의 설득에 허무한 삶에 대한 갈등을 하는 화자의 모습이 (다)에는 가정에 돌아와서 신발을 보며 현실의 고달픔을 되돌아보며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오답피하기

- ②(나)와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다)에서 신발을 응시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⑤(나)에서 ‘이리 승냥이’로 표현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확인할 수 있다.

39.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어부로서의 삶은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 어부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어부로서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공간과 ‘인세, 흥진, 장안, 북궐’로 표현되고 있는 속세의 공간이 대비되고 있다.
- ③어부의 삶을 살면서도 한시도 속세의 삶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에서 복잡한 화자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종장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이러한 걱정을 떨쳐버리려 애를 쓰고 있다.
- ④둘째 수에서 ‘천, 만, 십’의 숫자를 통해 속세와 단절된 거리를 강조하여 자신이 있는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 ⑤자신의 시름이 아니라고는 하였지만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있다.

40. 시적 화자의 태도 추리

정답해설 : 보기의 시조는 겨울날의 풍경을 마음껏 즐기는 어부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어부사시사는 어부단가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기에 두 작품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두 화자의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어부로서의 자기 삶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부사시사의 동사에는 색채의 대비가 나타난 하나 이상과 현실의 구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①어부단가의 두 번째 수에서 ‘청산’과 ‘월백’의 색채적 대조가 나타난다.
- ②어부사시사에도 눈의 ‘흰색’과 ‘붉은 꽃’의 색채적 대비가 나타난다.
- ④어부사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후렴구를 통해 시 전체에 활기와 흥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어부단가에는 둘째 수의 ‘무심’에서 보듯이 속세를 잊은 화자의 마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⑤어부단가의 ‘무심’은 다양한 시어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41. 작품간의 비교 대조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독을 버리라는 벗의 말에 잠시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외로운 혼을 견디고자 독을 차고 살아가겠노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화자의 강한 의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지의 대조는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다)에는 추위로 대변되는 현실과 가정에서 화자가 느끼는 따뜻한 느낌이 대조적이다.

오답피하기

- ②(나)의 핵심어는 시대적 현실을 이겨나가겠다는 순결 의지의 의미를 지닌 ‘독’이며, (다)는 가정의 가족애가 ‘신발’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③(나)에는 독을 버리라는 벗의 말에 흔들리는 화자의 내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화자는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다)에 비해 내면에 대한 성찰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지고 있다.
- ④(나)에서 화자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고 하며 내면의 의지를 다지는 반면에, (다)의 화자는 따스한 눈길로 신발을 바라보며 가장으로서의 진한 가족애를 느끼고 있다.
- ⑤(나)에는 화자를 설득하는 벗과의 대화가 인용되어 있고, (다)는 화자가 마음속의 말을 털어 놓는 어투를 취하고 있다.

42. 조건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자료는 영랑의 시적 특성과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품 감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영랑은 일제말의 시대적 현실을 살며 몸을 더럽히기보다 차라리 고향집에 머무르면서 시심을 가꾸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가리라’를 집을 떠나겠다고 해석한 것은 보기의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여기서 ‘가리라’는 독을 차고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일제 강점기에 느끼는 작가의 고통과 위기의식이 ‘이리 승냥이 내 마음을 노리매 /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말긴 신세’라는 표현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 ②작품 속에서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고 했으나 보기의 자료에서 보면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집 뜰에서 시심을 가꾸며 삶을 보냈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④벗과의 대화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작가는 고향 집에서 시심을 가꾸었다고 하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일제 말기의 시대 현실이 고통스러웠음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3. 시구의 해석

정답해설 : ‘연민한 삶의 길’이란 표현에는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현실은 차갑기에 삶은 연민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표현 속에 삶을 힘겹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시적 상황은 가정에 돌아와 신발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본 것은 작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이 작품에서는 비정하고 매정한 현실을 추위의 촉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이지만 화자는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
- ②여기에서 화자 신발의 문수는 ‘육문삼’의 막내둥이의 신발 문수와 대조되어 가장의 책무를 담아내고 있다.
- ④자식들을 ‘강아지’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아직 자신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또한 자식들에게 느끼는 화자의 따스한 정이 드러나기도 한다.
- ⑤‘왔다’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등장을 강조하며, ‘내’를 ‘아버지’로 변화시킴으로써 가장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다.

44. 시적 화자의 정서

정답해설 :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라는 말에서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이 화자를 힘들게 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실을 화자는 이겨내고자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정호승의 시에서 화자는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추위로 대변되는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면을 다지고 있다는 점이 ㉠과 유사하다.

오답피하기

- ①분단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작년의 단풍을 올해 다시 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③풀잎을 통해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화자의 연민의 감정이 보인다.
- ④막차가 오지 않는 대합실의 쓸쓸한 풍경이 느껴지고 있다.

기술, ‘장영실의 자격루’

이 글은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의 구조와 작동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격루는 기존의 물시계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더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의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첨단 기술이라 평가하고 있다.

45.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자격루는 물시계와 시보 장치,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방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는 물을 흘려보내는 파수호이며, ㉡는 이 물을 받는 수수호이다. 이 둘을 합쳐 물시계라 한 것이다. ㉢는 시간을 소리로 바꿔주는 시보장치이며, ㉣는 이 둘을 연결시켜 주기에 방목이라 할 수 있다.

46. 새로운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3문단을 보면 시보 인형은 시, 경, 점을 중, 북, 징을 쳐서 알려준다고 했다. 이 중에서 경과 점을 알려주는 2개의 인형은 경점법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보기는 경점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통해 볼 때, 경, 점은 매일 조금씩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보 인형 중 두 개는 오늘날의 일정한 시각을 알려주는 분침, 초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③경과 점의 길이가 해뜨고 지는 시각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다.
- ④경과 점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기에 시간 간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47.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격루는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기에 자동 물시계라고 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계식 장치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에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 기계식 시계라고 본 것이지, 자격루 자체가 디지털 방식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물시계 부분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에 오늘날의 아날로그 방식과 유사하다.
- ②자격루는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긴 했지만 아직 기계식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방식의 오늘날 전자식 시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 ④자격루의 시보 장치는 연속적인 물의 흐름을 디지털 방식의 불연속적인 신호로 바꾸어 부는 부분이다.
- ⑤시보 장치의 동력은 방목에서 제공한다고 했다.

48. 독자의 비판적 반응

정답해설 : 심화 학습이란 제시된 내용에서 한 차원 더 발전된 내용을 얻기 위한 학습이다. 또한 ‘자격루의 원리’에 대해 심화된 내용의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을 읽으면 자격루의 작동 원리가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자격루가 오늘날의 시계처럼 정확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차가 누적되었을 때 발생하는 차이를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묻는다면 이는 자격루의 원리를 더 한층 이해하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⑤자격루의 원리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 ③일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방법은 자격루의 원리를 떠난 질문이다.
- ④제시된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나, 이 또한 자격루의 원리와의 상관성이 없는 질문이다.

생활, ‘청소년의 노래방 문화’

이 글은 노래방 문화를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고 있다. 필자는 청소년들이 왜 노래방을 찾는지 밝히고, 이들의 노래방 문화가 상업 논리에 지배되는 현상을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을 마련해 줄 때, 청소년들이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49. 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된 중심 화제는 청소년들의 노래방 문화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청소년 문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화제는 청소년 문화로 확대되고 있다. 즉 특정한 사례를 통해 문제를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②청소년들의 노래방 문화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관찰한 내용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진술만이 나와 있을 뿐이다.
- ④청소년들의 노래방 문화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진단은 보이지 않는다.
- ⑤노래방 문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50. 새로운 관점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은 청소년들의 노래가 상업 논리에 지배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기의 자료는 이를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문화를 향유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즉, 상업 논리라 하더라도 상업 예술의 생산자는 판매를 위해 청소년들의 욕구를 노래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에 이들 노래에는 청소년들의 삶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51. 필자의 논지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에서 필자는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라는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열린 광장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광장의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52. 사전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침윤(浸潤)이란 ‘물기가 차차 젖어 들’ 또는 ‘사상이나 병균 따위가 차차 번져나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서서히 물들어가는’의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

고전소설, ‘심청전’

작품해설 : 유교의 근본 사상인 효와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눈 먼 아버지를 봉양하다가 마침내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삶을 포기해야만 했던 어린 소녀의 엄청난 희생은 비장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심 봉사 부녀의 가난한 삶은 당대 서민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서 심청이 효성으로 마침내 황후가 된다는 내용과 눈 먼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은 가난한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소리 청중들에게 매우 감동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고난을 효성으로 극복한 심청에 비해 뽕떡어미와 심봉사의 행위는 매우 현실적이다. 제시된 지문은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후 전생의 부왕인 용왕과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다.

주제 : 심청의 지극한 효성

53. 작품의 종합적 특성

정답해설 : 이 글에는 용궁에서 심청이 전생의 부친인 용왕을 만나는 장면과 현실에서 심현이 고통을 겪는 장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때 용궁은 비현실적인 고통이 없는 공간이나, 심현이 살고 있는 현실은 고통이 가득한 공간이기에 두 공간은 대립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병치’란 ‘둘 이상의 것을 같은 자리에 두거나 나란히 설치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제시된 장면에서 심현의 심리적 갈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인물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심현이 처음 제시되는 문장 ‘이때 심현은~수가 있겠는가?’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엿볼 수 있다.
- ③ 청이 과일을 먹고 전생을 기억하며 용왕을 부친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부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심현이 딸을 잃고 고통스런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비장미를 느낄 수 있다.

54. 어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대로라면 모든 존재는 옥황상제의 뜻을 따라야 한다. 즉, 심청이가 심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도,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후 심현이 고생하는 것도 모두 천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심청과 관련된 모든 고난은 심청이 용궁에 있을 때 ㉠과 같은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은 나머지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

55. 인물의 태도

정답해설 : 심현은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한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러한 운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체를 서글피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앓을 못 보면서도 가난한데 딸까지 먼저 보낸 자신의 운명을 서글피하고 있다.
- ③ 딸이 죽은 마당에 눈을 뜬다 하더라도 어찌 살아가겠냐며 통곡하고 있다.
- ④ 심청이 자신을 위해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밥을 빌려 다녔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세 살에 어미를 잃은 심청에게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56.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심청은 용궁의 과일을 먹고 전생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전생의 기억을 하며 부왕인 용왕의 모습을 알아 보고 있으며 지난날 자신의 과오 또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서의 삶을 잊은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 심청이가 떠날 때 이웃 사람들은 심현을 불쌍히 여겨 구호를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심현은 혼자 이러한 슬픔을 겪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③ 용궁에서 과일을 먹은 심청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 ④ 용궁은 심청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즉, 심청 이전의 존재였을 때의 과오로 인해 심현의 딸로서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한 심청이 다시 현실의 공간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전의 고통은 없을 것이기에 용궁은 변화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심청은 병든 아버지가 굶주리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전생의 일을 기억하자 용궁에 머물고 싶어 한다.

과학 ‘생물다양성의 가치’

이 글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파괴 현상을 필자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필자는 무한한 이익과 과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57.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에서 필자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언급한 후 현재의 감소 현상에 대해 심각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기후 변화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이 어느 정도, 어떻게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 1문단에서 생물다양성이 최근에 와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② 2~4문단에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5문단에서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④ 5문단에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58. 구체적 사례의 제시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세 가지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나 산소를 제공하는 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원료(㉣)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의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생물의 출현 시기나 이동 경로 파악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나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학술적 가치(㉨)라 할 수 있다.

59. 새로운 관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가설대로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주춧돌 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생물종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주춧돌 종이 어느 것인지를 모르는 한 생태계는 어느 한 순간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 ①, ③ 보기의 대갈못 가설은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를 든 것이다. 그러므로 못이 빠지는 것은 생물종의 멸종을, 비행기의 약화는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② 보기의 내용대로라면 아직은 주춧돌 종을 알 수 없지만, 생태계 내의 상호 작용을 훤히 알 수만 있다면 주춧돌 종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⑤ 대갈못 가설에 따르면 마지막 못이 빠지는 순간 비행기는 폭삭 무너진다고 했다. 이것은 생태계에서 주춧돌 종의 멸종 순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60. 관점에 대한 비판적 반응

정답해설 : 이 글에서 필자는 생물다양성의 다양한 가치를 언급하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가치는 생물다양성이 인간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생태계 자체의 가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필자의 의견을 보면 결국은 인간을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적 시각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을 5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 ②필자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모두 중요하다며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다.
- ④필자는 인간 중심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존 대책을 지적하고 있다.
- ⑤필자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홀수형)

정답

1.① 2.④ 3.④ 4.④ 5.③ 6.② 7.① 8.④ 9.④ 10.③
11.⑤ 12.⑤ 13.③ 14.⑤ 15.⑤ 16.④ 17.② 18.⑤ 19.③ 20.①
21.① 22.① 23.③ 24.⑤ 25.② 26.① 27.② 28.⑤ 29.① 30.①
31.② 32.② 33.④ 34.③ 35.⑤ 36.① 37.④ 38.① 39.④ 40.①
41.② 42.⑤ 43.③ 44.② 45.③ 46.④ 47.③ 48.⑤ 49.② 50.②
51.④ 52.④ 53.⑤ 54.① 55.④ 56.② 57.② 58.③ 59.③ 60.⑤

1. 추론적 사고(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할머니와 손녀딸이 자신들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한 손녀딸을 생각해서 몸이 불편한 할머니는 정성껏 도시락을 마련하여 학교까지의 먼 거리를 힘겹게 다녀왔다. 그런데 그 시간에 손녀딸은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해서 집까지 와서는 할머니의 식사를 차려놓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응으로는 ‘보살펴 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써 줌’의 의미를 지닌 ‘배려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공경은 ‘삼가고 존경함’의 의미이므로 이야기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2. 사실적 사고(자료에의 활용)

정답해설 : 가을에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표층수의 온도가 떨어지는데, 물이 최대 밀도가 되는 4도에 가까워지면 위의 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아래쪽의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전도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다. ④에서 4도로의 온도 하강에 따른 물의 전도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여름 호수의 그림이다. ②봄 호수의 그림이다. ③겨울 호수의 그림이다.

3.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두 사람의 대화는 처음 육필의 글쓰기에서 디지털 글쓰기로 넘어갔다가 점차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과 단점으로 화제가 확장되고 있다. 여학생이 먼저 토론 주제 거리로 ‘육필의 시대가 가고 디지털 글쓰기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남학생과 대화하면서 대화의 중심은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과 단점으로 넘어간 것이다. 여학생이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을 지적하자 남학생은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것이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며 그걸로 같이 내자고 했기에 이들의 과제물 제목으로는 ‘디지털 글쓰기의 장단점’이 가장 적절하다.

4. 비판적 사고(화자의 관점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강연자는 ‘마징가 제트’를 예로 들면서 ‘만화영화의 노랫말이 사회적 상황이나 인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표현하는가’라는 핵심 화제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캔디’라는 한국 노랫말과 일본 노랫말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즉, 일본의 원작에서는 말괄량이 소녀가 나오는 밝은 분위기였던 노래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성숙한 소녀가 나오는 슬픈 분위기의 노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이러한 이유가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 환경과 의식 구조가 노랫말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강연의 핵심에 대한 판단으로는 ‘노랫말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대비’한 것을 지적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①이 강연의 핵심은 일본의 영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즉, 수용과정에서의 변화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일본의 밝은 노래가 우리 나라로 들어와서는 슬프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

5. 추론적 사고(화자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드라마가 광재우 장군의 ‘영웅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영웅의 ‘개인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싶었다며 자신의 작품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러한 개인적 고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드라마에서 초점을 둔 것으로 작가는 이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6. 비판적 사고(대화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정답해설 : 진행자는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기보다 작가의 관점이 드러나도록 유도하고 있고, 작가의 대답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있다. 대화에서 관점의 차이는 작가와 연출가의 차이만이 드러날 뿐이다.

오답피하기 : ①진행자는 드라마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묻고 있으며, 작가가 문제점을 제시하자 작가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또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며 청취자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다. ③,④드라마 연출자는 광재우라는 인물의 영웅적 면모에 초점을 두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후, 자신은 이 작품에서 한 영웅의 개인적 고뇌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하였다고 의도를 밝히고 있다. ⑤진행자가 광재우 장군이 어떤 분이었는지 소개해 달라는 말에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7. 창의적 사고(연상된 주제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자료를 모두 사용하라고 했다.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위의 그림에서는 ‘깨끗함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고, 부정 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왼쪽 그림에서는 ‘정정당당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썩은 이를 뽑아 달라는 오른쪽 그림에서는 ‘잘못된 것은 근본적 원인의 제거’라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만든 공익 광고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경쟁을 연상할 수 있는 자료는 왼쪽 자료일 뿐이며, 이 자료는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아니다. ③타인에 대한 관심은 어떤 자료에서도 연상하기가 힘들다. ④효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⑤위의 자료만을 활용한 것이다.

8. 비판적 사고(개요의 수정 방안)

정답해설 :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는 내용은 ‘Ⅱ-2’보다는 ‘Ⅱ-3-가’인 ‘에너지 자원 확보’로 옮겨야 자연스럽다.

오답피하기 : ①‘슬기롭게’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여 주제를 수정하였기에 적절하다. ②‘고유가 시대의 수출 전략’이라는 내용이 본론의 첫째 항목으로 바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에 삭제하거나 뒤로 이동해야 한다. ③하위 항목의 내용인 ‘에너지 자원 확보와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관련 극복 대책’은 적절하다. ⑤실천 촉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에 적절한 수정이다.

9. 비판적 사고(쓰기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글쓰기의 계획은 주제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주제에서 행동의 주체는 ‘정부와 관련 단체’인데,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체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하기’나 ‘규칙적인 운동 습관 갖기’의 주체는 청소년 당사자에게 적절하지 않다.

10. 창의적 사고(조건에 따른 글쓰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상대방의 의견은 낙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시설에 낙서하는 것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글을 찾아야 한다. ③은 첫째 문장에서 ‘동의한다’며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나’로 시작하여 반론을 시작하고, ‘공공의 윤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셋째 문장에서 낙서를 ‘얼굴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반론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②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인정이 없이 반론만 드러나고 있다. ④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⑤상대 의견에 대한 반론만 드러났을 뿐이다.

11. 창의적 사고(조건에 따라 바꾸어 쓰기)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은 힘자랑만 하는 참나무가 결국 바람에 부러지고 말았지만, 약하다고 놀림 받았던 갈대는 바람을 이겨냈다는 것으로 참나무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갈대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화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오히려 참나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주제를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주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보기는 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지만, 서술자가 갈대로 바뀐다면 모든 것은 갈대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②보기에서는 갈대의 유연성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즉, 갈대를 외적 힘에 쉽게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로, 참나무를 어떤 외적 시련에도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다가 꺾이고 마는 의지적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③우화는 결국 인간 세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이를 현실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④보기에서는 참나무와 갈대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둘의 대화를 직접 보여 주고 구체적 장면 묘사를 한다면 갈등이 더 첨예하게 드러나고 생생함이 느껴질 것이다.

12. 고쳐 쓰기(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㉔의 ‘물론’은 ‘그런데도’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끼다’와 ‘들다’의 두 단어가 결합될 때, ‘-어’라는 어미가 연결시켜 주고 있기에 ‘끼어들다’가 되어야 한다. ‘끼여들다’는 피동형으로 ‘끼이어들다’가 축약된 것이다. ②‘틀림없이’라는 부사어는 ‘-해야만 한다’ 또는 ‘-이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들어간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호응이 된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므로 호응이 되지 않기에 삭제해야 한다. ③‘미워서’를 쓰려면 ‘너를’이 아니라 ‘너가’를 앞에 제시해야 한다. ④‘풀려지도록’에는 ‘리’와 ‘-어지’의 피동 표현이 두 번 쓰였기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

13. 어휘, 어법(문장 구조의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또 하나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안은 문장들이다. 결국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전체에서는 하나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기에 안긴 문장이라 할 수 있다. ㄱ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는 ‘담장’이며 서술어는 ‘씻었다’이다. 밑줄 친 부분 또한 하나의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땀’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서술어로 ‘흐르는’이다.

오답피하기 : ①밑줄 친 안긴 문장은 하나의 문장 구조를 이루면서도 커다란 문장

내에서는 하나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ㄱ의 밑줄 친 부분은 ‘땀’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기에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ㄴ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을’이 붙어 ‘모르는’의 목적어 구실을 하고 있으며,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가 붙어 ‘잘난 척을 해’라는 행동을 수식하여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④ㄴ에서 ‘그가 착한’은 주어(그)와 서술어(착하다)를 가지면서 ‘사람’을 수식하여 관형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생략된 주어(사람들)와 서술어(모른다)를 가진 채 ‘사람’을 수식하고 있기에 관형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⑤문장 속에 다른 문장을 안고 있으면 문장이 길어지는 것이기에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14. 어휘, 어법(한자어의 의미와 용법의 파악)

정답해설 : 같은 한자가 들어 있어 의미상의 공통점은 있으나 분명한 의미 구별이 있는 한자어들이다. ‘식별 : 알아서 구별함’, ‘분별 :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름 또는 돌아가는 형편을 헤아려서 앎’

오답피하기 : ①‘금방 : 이제 곧’의 의미로 미래 시제를, ‘방금 : 바로 이제’의 의미로 과거 시제를 지닌다. ②‘구조 : 구하여 줌’, ‘구원 : 도와 건져 줌 또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 냄’ ③‘당황 : 놀라거나 다급하여 정신이 어리둥절함(어쩔 줄을 모름)’, ‘황당 : 거칠고 허황하다’ ④‘변환 : 달라져서 바뀜’, ‘변천 : 변하여 바뀜’

[15-19]현대시

작품 해설

(가) 이용악, ‘낡은집’ : 이 시는 일제강점기 고통 받는 식민지 백성들의 삶을 털보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은 채 담담하게 전달만 하고 있다.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낡은 집’은 일제의 핍박으로 몰락한 농촌의 현실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 유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털보네 가족이 살다 떠난 낡은 집은 어느 한 가족만의 집이 아닌 백성들의 집으로 확대되면서, 오랜 세월 고통 받아 온 하층민 계급의 빼앗긴 삶과 가난, 그리고 한과 분노를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시의 내용은 서사적이며, 객관적인 현실 묘사를 통해 사실주의 경향의 작품을 이루었다.

주제 : 일제 강점기의 피폐한 삶 고발

(나) 광재구, ‘은행나무’ : 은행나무라는 자연물을 인격화시키고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지금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절망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기에 화자는 여기에서 현실을 이

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배우고 있다. 자연물이 인간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은행나무에서 배우는 의연한 삶의 모습

15.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가)에서 현재는 털보네 가족이 떠나고 남은 집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화자는 이 남은 집에 얽힌 털보네 가족의 사연을 시간 순서대로 담담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화자는 현재 은행나무를 보면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현실에 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제를 보아도 현재형의 시제로 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가)에서 화자가 살고 있는 곳, 즉 털보네가 살았던 곳은 시골 마을임을 알 수 있다. 털보네의 외양간, 노루 멧돼지 쪽제비가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마을, 싸리말 동무, 저룻등, 방앗간 등을 통해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②(가)는 털보네가 떠난 후 그루터기만 남아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 남은 집에 대한 쓸쓸한 묘사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화자는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고 현재의 절망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라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나)에서 화자가 처한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때로는 세상을 -- 들어선다 해도’에서 짐작할 수 있으나 그 현실이 정확히 어떤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에서는 아들을 낳고도 이를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과 늘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 그리고 결국은 야반도주(夜半逃走)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④(가)는 털보네가 살았던 황폐해진 ‘남은 집’에 대한 서술에서 시상이 시작되고 있고, (나)는 은행나무를 통해 시상이 확장되고 있다.

16.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서 시어는 주어진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가)에서 ‘찾길’은 이렇게 볼 때, 부정적인 어감을 띠게 된다고 했다. 털보네가 결국 고향마저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식민지하의 시대 현실을 떠올려야 하고, 그렇다면 ‘찾길’은 단순히 도로로서의 의미가 아닌 식민지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제가 의도적으로 건설한 산물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나)에서 ‘도롱이집’은 두 번 제시되고 있다. 처음에 제시된 도롱이집은 실제의 도롱이집으로 이해하든지, 은행나무잎의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하든지 객관적인 의미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에 제시된 ‘도롱이집’은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으로 가진 것이며, ‘불법’으로 들어선다고 했기에 부정적인 어감이 분명해지고 있다.

17.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시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시가 창작된 연도를 밝히고 작가의 실제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가)의 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기에 시인의 삶(작가론)이나 당대의 시대적 배경(반영론)은 작품에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에 시적 화자는 털보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친구이다. 즉,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에서 ‘애비’는 털보 아들의 애비 즉 털보인 것이다. 또한 시에서 털보는 죽지 않고 고향을 떠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작가의 아버지가 객사했다는 사실을 연상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 시에서 화자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이 시를 읽고 털보네가 왜 고향을 떠났을까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대의 시대적 현실을 추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38년에 이 시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털보네가 떠난 원인이 일제의 식민지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작가는 실제 가난한 삶을 살았기에 털보네의 가난한 삶을 토대로 한 작품이 나온 것이다. ④작가가 실제 유이민의 비극적인 삶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기 전까지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작품에 제시된 털보네 삶이다. ⑤‘싸리말, 짓두광주리, 저릅등, 글거리’는 함경도 방언인데, 실제 작가가 함경도 출신이라는 것에서 그의 함경도에서의 체험이 시에 방언으로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창의적 사고(다른 장르로의 변용)

정답해설 : 시를 희곡으로 변용하는 것이지만 시에서의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면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시에서는 장르적 특성상 상황과 행동만 제시되었을 뿐이지만 희곡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심리를 직접 보여 주는 것이 다르다. 털보네가 셋째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털보 또한 소주에 취해 눈이 붉어 있다. 이는 자식 하나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가난한 형편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있는 저릅등은 털보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털보가 ㉠에서처럼 미래를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작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19. 비판적 사고(시구의 이해 및 감상)

정답해설 : ‘자기 뭇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의 행동 주체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구’이다. 또한 이들은 ‘불법’으로 이 땅 위에 들어서는 자들이기에 부정적인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부정적 행동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이밖에도 은행나무 잎의 비유적 표현으로는 ‘노오란 우산깃, 아름다운 연서,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이 있다. ②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 있지만 이러

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앞에 나온 노오란 우산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낭만적 대상인 은행나무 잎만을 의미하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노오란 우산것은 화자에게 현실을 이겨낼 힘과 미래에의 희망을 주는 대상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⑤ ‘희망’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불타는 형상’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20-23] 고전소설, 최고운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황금 돼지 이야기, 아기 장수 설화, 최치원의 일대기’등 여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영웅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신라 말기의 대학자인 고운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가 뛰어난 문재(文才)를 발휘해 중국 황제와 학사들을 탐복시키고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나온 그들의 괴롭힘에 당당히 맞선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부심과 문화적 우월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임진왜란 때 명의 지나친 간섭과 횡포에 대한 민중의 울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 최고운의 일대기를 통한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20. 사실적 사고(사건의 전개 과정 이해)

정답해설 : 최치원이 중국으로 떠날 때 50자 되는 모자를 마련하여 떠났고, 쥬문을 들어설 때 대국의 쥬문에 ‘모자’가 닿는다며 한동안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쥬문을 부수게 하였다. 또한 중국 황제는 악사들을 매복하여 최치원의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하였으나 치원이 청색과 흰색의 부적을 던져 제압한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구덩이에는 ‘구렁이’가 가득했다고 했다. 이어서 황제가 준비한 코끼리를 황색 부적으로 제압했는데 그 부적이 ‘누런 벌’로 변해서 코끼리의 입을 막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학사들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으나 치원이 이에 수없이 많은 ‘시’를 지어 줌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21. 추론적 사고(사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이야기의 핵심 사건은 황제가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최치원을 불러 죽이려고 했으나, 최치원이 지혜와 재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황제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국이라고 업신여기며 부당하게 억압하는 대국의 횡포에 맞서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소국의 자존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치원의 행동에서 영웅적인 면모는 보이나 이것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2. 비판적 사고(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자는 중국을 ‘대국’이라 칭함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듯하지만, 대국의 쥬문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이는

결국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기의 시에서도 1행과 2행에서는 상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3행에서 ‘그 공이 이미 높다’고 했고, 4행에서 만족함을 알고 그만 두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결코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인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④보기의 시나 ㉠에서 화자의 영웅적인 기개는 엿볼 수 있으나 ‘상대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지는 않다. 우회적으로 조롱한다는 것은 꾸짖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꾸짖는 것이지만, 준엄하게는 매우 엄격하게 꾸짖는 것이기 때문이다.

23. 비판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과 ㉡는 동일한 어휘지만 어휘가 담고 있는 문맥적 의미는 다르다. 즉, ㉠에서의 장막은 최치원이 오는 길에 방해를 주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이는 최치원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최치원이 모든 장애물들을 비범한 능력으로 해결해 나오자 결국 ㉡의 장막을 쳤다. 그리고는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거처도 같게 했다. 이는 황제가 최치원을 자신과 같은 대접을 받을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는 최치원을 위협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기에 인정할 수 있으나 ㉢는 용서와는 거리가 멀다. 용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내리는 관용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황제는 최치원을 인정하고 예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4-27] 과학, ‘진화에 따른 인간 호흡기의 불리한 구조’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간의 호흡 기관이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을 진화 과정에서 찾아 해명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호흡기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몸집이 커지면서 호흡기가 생기게 되고 다시 허파가 생기는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화의 과정을 시간 순에 의한 서술과 인과 관계에 따른 서술을 하고 있다.

주제 : 불합리한 인간 호흡기의 진화론적 규명

24.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핵심은 인간의 호흡기가 왜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해명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구조의 원인을 진화의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이상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그때 그때 변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로 선택된 것이 현재 인간의 호흡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글쓴이가 다룬 핵심 문제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 ㉢글의 시작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핵

심 화제 중의 하나는 진화론적 해명이기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④인간의 호흡기는 진화의 결과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구조를 띠고 있기에 이를 해소시킬 근본적인 방안은 없다.

25. 사실적 사고(글의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서는 척추 동물의 조상형 동물에서 소화계가 호흡계로 진화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 체의 구조였기에 별도의 호흡계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몸집이 커지면서 호흡 기능의 하나인 ‘아가미’가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호흡기의 일부가 변형하여 ‘허파’로 발달되었으며,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는 콧구멍에서 입천장을 뚫고 들어가 자리잡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폐어 단계의 호흡기 구조라고 했다. 그림에서 이러한 호흡계를 찾는다면, ㉠가 바로 맨 나중에 생겨난 ‘공기 통로’이며, ㉡는 호흡기인 ‘아가미’, ㉢는 아가미가 변형되어 생긴 ‘허파’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구조가 바로 폐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흡계 구조이기는 하나, 폐어 이후에 공기 통로가 진화된 구조이다. ㉤는 위이기에 호흡계 구조가 아니다.

26.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타협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바로 인간의 호흡계가 이러한 과정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이다. 법률이 처음에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충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개정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타협적인 구조에 의한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숙련된 선수로 되는 것이기에 이상적인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단계를 밟아서 차츰차츰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27.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출발점은 인간의 호흡계가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명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호흡계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글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 ㉠1문단에서 인간과 달리 곤충이나 연체 동물 같은 무척추동물은 음식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없다고 했다. ㉢4문단의 첫 문장에서 진화는 반드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문단에서 척추동물의 조상형 동물은 처음에 체와 같은 구조만 있으면 되기에 별도의 호흡계가 필요하지 않다가, 몸집이 커지면서 호흡계가 생겨났다고 했다. ㉤4문단에서 설명했듯이 바로 인간의 호흡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는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28-32] 사회, '선거에서 신문의 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선거 과정에서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신문이 비록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도 이것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원론적인 차원과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개념에 대한 정의와 예시, 화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주제 : 선거 과정에서의 신문의 역할에 대한 고찰

28.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신문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유권자의 표심'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만약 유권자의 표심까지 반영한다면 모든 신문이 지지하는 후보는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3문단에서 보강 효과 이론은 미디어 메시지가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태도나 의견을 보강하는 것이라 했다. ②3문단에서 선별 효과 이론은 개인이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③5문단에서 신문의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④2문단에서 신문이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는 신문이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예시가 나왔다.

29. 비판적 사고(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1문단에서 미국의 유명한 신문들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례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신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30. 사실적 사고(구체적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란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문단 ㉠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후보 지지 선언의 영향력'을 제기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언론의 권력 강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 선점',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에 글쓴이는 이러한 행동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고 했고, 독자들 역시 지지 선언

에 숨어 있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세력이 후보 지지 선언을 이용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었지만, 신문을 지배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1. 창의적 사고(중심 문제의 현실 적용)

정답해설 : A에서 제시된 두 이론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를 적용할 수 없는 예를 찾아야 한다. 두 이론의 핵심은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든지, 이것이 개인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②에서는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행동에 그대로 영향력을 주고 있기에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③,④는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미디어가 개인의 기존 태도나 의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는 선별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디어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32. 어휘, 어법(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담보(擔保)’는 ‘말아서 보증함, 또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빚 준 사람이 그 빚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으로 제공하는 보장’의 의미를 지닌다.

[33-36] 기술, ‘기술 혁신의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기술 발전은 대체로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의 일부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을 판유리 제조 공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기술 혁신의 과정이 비록 험난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는 자만이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3.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기술 혁신 과정의 핵심은 바로 ㉠과 같이 여러 공정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러면 생산성은 향상되고, 숙련공에 의존도는 낮아지기에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하지만 ④에 제시된 사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여러 공정이 하나의 공정으로 압축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해야 할 일을 한 번에 해 버리는 것이기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진공 청소기는 ‘쓸고, 닦는’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 ②스팀 다리미는 ‘뿌리고 다리는’ 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 ③콤바인은 ‘베고 탈곡하고 담는’ 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 ⑤자동 제빵기는 ‘반죽, 발효, 굽는’ 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

34. 사실적 사고(지시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에서 말한 이 공정이란 플로트 공정이다. 이 공정이 기술 혁신을 가져온 것은 '원료 배합 및 용융, 성형, 서랭'의 세 단계를 플로트 공정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의 '탱크가마'에서 유리의 '원료 배합 및 용융'이 이루어지며, ㉢의 통로를 빠져 나온 녹은 유리는 ㉣의 '주석 욕탕' 위를 지나면서 녹은 판유리 모양으로 '성형'되고, ㉤의 롤러에 의해 ㉡의 서랭 터널 속에서 식으며 절단되기 전의 상태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석 욕탕'은 ㉣라 할 수 있다.

35. 추론적 사고(내용의 맥락 추리)

정답해설 :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결국은 성공하였다.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 쉽게 수익성을 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A의 내용만 가지고 필킹턴 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기술 개발에 성공했을 것이란 추리를 할 수는 없다. 많은 회사들이 매달렸지만 필킹턴 사가 제일 먼저 기술 혁신에 성공했다는 정보가 제시된다면 ㉤와 같은 추리가 가능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 ㉠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을 도입한 후 12년이 지나서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보아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비가 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랬기에 곧바로 공정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을 즉각 활용했다고 했다. ㉢, ㉣ 필킹턴 사가 공정 개발비를 회수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줄 알았다면 기술 혁신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36. 어휘, 어법(관용어구에의 적용)

정답해설 :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다는 것은 오늘날에 교훈이 될 만한 것을 과거에서 얻기 위함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이기에 이러한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다.

오답피하기 : ㉡ 다다익선(多多益善)의 의미는 '많을수록 더욱 좋다'이다. ㉢ 연목구어(緣木求魚)의 의미는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 일거양득(一舉兩得)의 의미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이다. ㉤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의미는 '같은 침대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것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아주 판 생각을 함'이다.

[37-43] 수필, 고전시가 복합

작품해설

(가) 조지훈, '멋 설' : 작가는 가을을 맞아 '멋'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연상하고 있다. 멋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규정들, 삶을 번뇌와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 복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해 작가는 비록 소박한 삶이

지만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멋이라 했다. 이러한 내용을 고풍스러운 느낌이 드는 어휘와 어투를 사용하고, 영탄적 어조와 대구, 설의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이황, ‘도산십이곡’ : 이황이 안동에 물러가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이 시조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 흠뻑 취해 사는 자연 귀의 생활(전6곡)과 후진 양성을 위한 강학과 사색에 침잠하는 학문 생활(후6곡)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퇴계는 한시보다는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시조가 더 요긴하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면, 감정을 유발하여 서로 통하게 하는 효과가 크며, 노래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유익한 관계가 된다.’고 말한다. 시조의 교훈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37.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작가는 ‘멋’을 중심으로 생각을 펼치며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배우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며 학문을 수양하고 인격을 수양하며 사는 것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체험에 대한 사실적 전달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②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에서 세상을 괴롭게 여기는 사람들, 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다. ⑤규범적 가치라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38. 창의적 사고(작가의 관점 적용)

정답해설 : (나)의 화자는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인격 수양(학문 수양)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 화자가 (가)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찾는 것이다. (가)에서 작가는 가을을 맞아 멋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연상하고 있다. 멋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규정들, 삶을 번뇌와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 복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해 작가는 비록 소박한 삶이지만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멋이라 했다. 결국 (나)의 화자나 (가)의 작가나 ‘욕심 없이 자족하며 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 칸에는 이러한 내용을 가치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②(나)의 화자나 (가)의 작가는 인간의 이욕에 매여 사는 삶에 대해 비판적이다. ③(나)의 화자는 자신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④(가)의 작가는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진다고 하며 구태여 복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⑤(가)에서 사람들이 기이하거나 허황한 것을 좋아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9.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작가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드러냄에 있어서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작가의 괴로움에 대한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답피하기 : ①글의 마지막 부분 ‘어째 세상이 괴롭다 하느냐’,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에서 특히 이러한 영탄조의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글쓴이는 2문단에서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바로 이어서 자신이 대답하고 있다. ③‘우주를 자적하면 --우주는 슬픈 속이었다.’, ‘시를 읊을 --물이 있으니’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 오늘 밤엔 멋이다.’는 문장에서는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 ⑤ ‘--하더라, 되는구나, 있다 하랴, --이라, 삼노라’의 서술어에서 예스러운 말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위전변, 자적, 회의, 속, 아, 일상, 서’ 등의 한자어가 곁들여져 고풍스런 느낌을 주고 있다.

40. 추론적 사고(필자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작가가 행복으로 여기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가을의 분위기를 느끼며 네 활개를 펴고 잠든 모습이나 자적하면 멋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음의 흐름대로 따르는 것(③)을, 글의 뒷부분 ‘한 바리 밥과 -- 복이 족하지 않은가.’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②)을, ‘시를 읊을 동쪽 -- 허물할 이가 누군가.’에서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것(⑤)을, 마지막 문장의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에서 세상 이치를 알아 가는 것(④)을 행복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41.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B에서 말하는 ‘허다영재’란 선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수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한 A에서 ‘허물이나 업고자’ 하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신의 삶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B의 ‘허다영재’는 이러한 A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길 것이다. ‘현학적(衞學的)’이란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잘난 체하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오답피하기 : ①A의 초장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에 ‘연하’와 ‘풍월’은 향유 대상이다. D에서 화자는 ‘청산’과 ‘유수’처럼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겠다고 했다. 즉, 언제나 푸른 산과 그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학문을 수양하고 인격을 닦겠다는 것이기에 이는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이다. ③C의 구절은 책을 읽으며 사는 삶에서 무궁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E는 학문을 하며 살다 보니 늙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기에 상통하는 면이 있다. ④D의 ‘그치지 말아’의 대상은

학문 수양과 인격 도야이다. 그러므로 C에서 ‘만권생애’의 학문 수양과 관련이 있다. ⑤B에서 말한 것처럼 ‘어진 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E에서 말한 ‘우부’ 즉, 어리석은(평범한) 사람들마저도 자기수양이 가능한 것이다.

42. 추론적 사고(다른 작품에의 적용)

정답해설 : A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삶은 소박 할지라도 이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인 것이다. 그런데 ⑤의 누항사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삶에 치이는 화자의 삶이 나타나 있다. 비록 이러한 가난 속에서도 충심은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삶에 자족하기보다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43. 어휘, 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및 적용)

정답해설 : ㉠의 ‘대중이 없다.’는 뚜렷이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좌지우지하다’는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주도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에 이와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의 단어들은 ‘뚜렷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에 ㉠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보인다.

[44-47] 언어, ‘문자 발달사에 따른 문자의 장단점과 한글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문자 발달사에 따른 각 문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문자들이 지닌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글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문자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한글의 문자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 있다. 글쓴이는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른 서술과 구체적 예시, 비교·대조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44.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음절 문자나 음운 문자는 모두 표음 문자에 속한다. 표음 문자는 글자의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음절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의 가나가 있으며, 음운 문자는 자, 모음으로 분리되는 영어나 한글이 있다.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음절 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절 문자보다 음운 문자의 글자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그림 문자는 대상을 직접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표음 문자는 추상화된 기호에 의미를 결합시킨 사회적인 약속의 체계이다. 그러므로 표음 문자가 그림 문자보다 더 발달된 문자라 할 수 있다. ③4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한글은 음운 문자, 자질 문자의 특성, 음절 문자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다고 했다. ④4문단 전반부에서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는 글자의

음을 주로 이용한다고 했다. ⑤3문단 첫 문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5.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한글은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질 문자’적 특징을 가진다고 했다(ㄱ). 그리고 4문단에서 한자는 문자 분류상으로는 표의 문자이지만,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주로 음만 이용하는 음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ㄴ). 한글 또한 음운 문자이면서도 문자 운용에 있어서는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정점을 가진다(ㄷ). 이것이 바로 같은 음운 문자인 영어 알파벳과 다른 한글만의 장점인 것이다.

46. 창의적 사고(사고 과정의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한글은 음운 문자에 속하면서도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질 문자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보기이다. ④에 보기로 제시된 한자는 자형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문자 전체에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글자가 자질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에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 ①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ㄱ, ㅌ’은 ‘ㄱ, ㄷ’에 가획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닮았다. ②2문단 6-7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래 글자와 가획 글자의 발음 위치는 같다. ③2문단 7-8행에서 가획을 통해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낸다고 했다. ⑤2문단 4-6행에서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질 ‘문자’를 설정한다고 했다.

47. 창의적 사고(내용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3개이다. 첫째 음운 문자, 둘째 자질 문자의 특성, 셋째 모아쓰기이다. 첫째 음운 문자는 표음 문자 중의 하나이기에 글자가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호로 표시되면서도 자, 모음으로 나뉘는 것이어야 한다. (③,④,⑤) 하지만 ‘도토리’에서 ‘도’와 ‘토’의 모음은 같기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은 ③ 하나뿐이다. 둘째 자질 문자의 특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도토리’에서 ‘ㄷ’과 ‘ㅌ’의 연관성처럼 새로운 문자에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야 한다.(③,④) 셋째 모아쓰기는 도토리과 같이 세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③,④,⑤)

오답피하기 : ①,②자, 모음의 분리가 없기에 모아쓰기도 하지 않았으며, 자질 문자의 특성도 확인할 수 없다. ④음운 문자, 자질 문자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모아쓰기도 하였으나 모음의 표기가 잘못 되었다. ⑤음운 문자, 모아쓰기만이 반영되었다.

[48-51] 예술, ‘판소리 문학에서의 이면을 그리기’

지문해설 : 이 글은 판소리 문학에서의 ‘이면을 그리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판소리에서 사실 내용의 해석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이러한 관점들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내리고 있다.

48.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이면을 그린다’이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러한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개념에 대한 규정과 의미 파악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이면이란 무엇이냐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동시적’이란 시간의 순서대로 대상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글이 진행되면서 이면을 그린다는 의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시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 ①2문단에서 ‘이면을 그린다’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며, 4문단에서 사실 내용에 대한 관점에 대해 질문을 던진 후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②처음 시작에 있어 춘향가라는 예를 통해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③3-4문단에서 판소리의 사실 내용을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유동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이러한 대비 과정에서 각 관점이 지닌 장, 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49. 추론적 사고(글의 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이면의 의미에 대해 2문단의 3행에서 먼저 ‘음악 행위에 의해 구현된 그 무엇’이라 했다. 즉, 이면이란 ‘사실의 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러한 의미적 측면 말고도 분위기,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면을 적절하게 소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이면의 내용으로는 ‘창자가 소리로 표현해 내고자 하는 바탕’이라는 규정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50.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판소리의 창자가 이면을 잘 그렸다는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왜냐 하면 일단 이면을 잘 파악해 내기 위해서는 창자가 사실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④), 이러한 내용과 분위기까지 소리로 전달을 해야 하고(③), 또한 전달 과정에서 음악적 표현을 내용에 딱 맞도록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어울려서 소리로 나왔을 때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①). 하지만 독창적 창법의 개발 자체가 이면을 잘 그렸다는 평가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51. 어휘, 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는 ‘소리’라는 어휘가 특히 많이 나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리는 대부분 ‘판소리나 잡가 등의 옛노래’. 또는 ‘노래’를 달리 일컫는 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㉔에서의 ‘소리’는 사전에서의 중심적 의미인 ‘귀에 들리는 공기나 물체의 빠른 진동’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52-55] 인문, ‘느낌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

지문해설 : 이 글은 개인이 느끼는 아픔과 같은 ‘느낌’이 과연 정확하게 관찰될 수 있고, 개인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않기에, 다양한 가설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52. 비판적 사고(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라)에서는 (다)에서 말한 고전적인 해결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느낌 자체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두뇌 속 뉴런의 발화를 통해 인간의 심리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느낀 ‘느낌’이 다른 사람의 경우와 똑같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지는 못한다. 결국 이 방법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㉔에서 ‘해결될 수 있음’이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내가 손가락을 베인 경험을 토대로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②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아니라 고통을 느낀다는 전제 하에서, 내가 느낀 아픔이 상대방이 느낀 아픔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를 하고 있다. ③말이나 행동의 동일성이 느낌의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고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이는 하나의 사례로 판단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⑤일부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해결책을 소개했으나 이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53.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기에서 A가 영화가 슬프다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B는 자신도 슬픔을 느끼지만 A가 느낀 감정과 B가 느낀 감정이 같은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B의 이러한 반응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B는 자신의 감정은 직접 느끼고 관찰할 수 있으나, A의 감정은 ‘울음’이라는 행동을 통해 관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슬픔을 직접

관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바로 이 글의 핵심인 것이다.

54. 추론적 사고(논증의 전개 방식 이해)

정답해설 : ㉠은 하나의 사례인 개인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내가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하나의 상자만 열어 보고 다른 상자에도 똑같이 책이 있다고 추리하는 것 역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이번에 수소를 낳았다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암소나 수소를 낳을 확률이 반반씩인 것이다. 즉,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데 마치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해석하는 원인 오관의 오류이다. ㉣‘훌륭한 인재’와 ‘화목한 가정 꾸리기’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인데,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맞는 것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리다고 했으므로 흑백 논리의 오류이다. ㉥결론이 반증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결론이 증명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55. 어휘, 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의 ‘치다’는 ‘인정하거나 가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가정하고 그만 화해하자.’의 ㉣번이다.

오답피하기 : ㉡,㉢‘계산에 넣다’ ㉣‘값을 매기다’ ㉤‘따지다’

[56-60] 현대소설,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작품해설 : 1936년에 발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의 단편 소설로서, 떠돌이 인생의 비애를 그려내고 있다. 시적 정서가 향토적 배경과 토속적인 언어와 함께 산뜻하고도 애뜻하게 흐르는 소설이다. 작가는 이 작품의 목적을 허 생원이나 동이의 인생에 대한 것보다 숨 막힐 듯한 메밀꽃이 피는 달밤의 정경을 나타내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 선달, 허 생원, 동이 등은 인격체로서의 소설적 인물이 아니라, 당나귀와 같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사물의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줄거리 자체보다는 작품의 분위기와 서정성을 중시한 시적 수필로 평가받고 있다.

56.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허 생원이 평생에 인연이 없다고 말한 것은 (다)에서 제시되고 있는 젊은 날의 ‘단 한 번의 인연’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그렇기에 허 생원에게 이러한 단 한 번의 추억은 의미 있는 것이고, 이를 생각할 때면 그도 산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가)에서 서술자는 허 생원이 장돌뱅이 생활을 하며 어디어디 돌아 다닌다는 내용과 허 생원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평은 제

시되지 않았다. ③허 생원의 단 한 번의 추억은 현재 혼자 있음으로 인해 더욱더 그리움의 대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오늘 밤도 또’ 그 추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흠뻑 빠진다는 것이며, 그때의 감정을 또 느끼는 과정이기에 대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해 허 생원과 조 선달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조 선달은 허 생원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 싫증이 날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장면의 행동이나 대화에서 갈등의 상황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④(라)에서 과거 상황과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장치는 ‘메밀꽃과 달밤’의 분위기이다. ⑤(마)에서 조 선달은 현재의 장돌뱅이 생활을 빨리 접고 정착의 삶을 살려 생각하고 있지만, 허 생원은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생활을 지속할 것이라 했다. 오히려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라는 말에서 추억에의 회상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57. 추론적 사고(공간적 배경의 파악)

정답해설 : 허 생원은 반평생을 떠돌며 장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봉평 장을 빼 놓은 적은 드물다고 했다. 왜냐 하면 허 생원은 평생 인연이 없는 듯 살아왔지만 봉평은 젊은 날 단 한 번의 인연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봉평은 허 생원의 마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ㄱ). 또한 허 생원의 삶은 비록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젊은 날의 추억을 생각할 때에는 그도 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렇기에 달밤에 길을 걷고 있다 해도 허 생원은 젊은 날의 추억이 있기에 현실의 어려움을 참아 낼 수 있는 것이다(ㄴ).

오답피하기 : ㄴ에서 말하는 무섭고도 기막힌 이야기는 허 생원이 젊었을 때 실제 체험한 것으로 비현실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ㄷ에서 첫문장의 진술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허 생원에게 봉평은 반성의 공간이 아니라 젊은 날의 단 한 번의 인연이 있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58. 창의적 사고(표현 효과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A에 제시된 부분은 한국 소설 중에서 가장 묘사가 잘 된 부분으로 흔히 지칭되고 있다. 다양한 이미지를 동원하여 묘사한 밤길의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적 분위기가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초청장을 만들었다면 ‘서정과 낭만으로 빛은 집’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59. 추론적 사고(구성 요소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장돌뱅이들이 다음 장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 들에 개울 하나,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아직 가게를 얻을 형편이 못 되기에 장돌이를 하는 것이고, 자야 할 시간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밤길은 현실의 암담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어지는 밤길의 묘사는

낭만성이 두드러질 정도로 분위기 있게 묘사되었으며, 이러한 달밤의 분위기가 허생원을 과거 그날 밤의 추억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허생원에게 ‘밤길’은 오히려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장에서 장으로 걷는 길은 바로 장돌뱅이 허생원의 삶의 공간이다. ④허생원과 조선달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동이가 배제되다 보니,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개울가의 극적인 장면(허생원과 동이의 대화 장면)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⑤허생원은 처녀를 만나지 않는 한, 이 길을 걸으며 과거의 추억에 빠져드는 현재처럼, 계속 이러한 삶을 미래에도 지속할 것임을 알 수 있다.

60. 어휘, 어법(조사, 어미의 구분 및 적용)

정답해설 : ㉔의 ‘는’은 ‘용언의 어간에 붙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의 ‘는’은 ‘받침 없는 말에 두루 붙어, 가름(구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다.